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서

최대비상방역전에 참전하여 혁혁한 위훈을 세운 조선인민군 군의부문 전투원들을 만나시고 뜻깊은 축하연설을 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서 8월 18일 최대비상방역전에 참전하여 수도보위, 인민보위의 성스러운 임무를 완수하고 불멸의 위훈을 세운 조선인민군 군의부문 전투원들을 만나시고 축하격려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의 특별명령에 따라 조선인민군 군의부문 전투원들이 집결된 4.25문화회관은 악성비루스를 박멸하기 위한 치렬한 전쟁을 치르며 희생까지도 각오하던 그 나날 꿈결에도 그리며 단 한번만이라도 비유기를 그토록 소원했던 김정은 원수님을 뵈 가까이 모시는 영광과 행복의 시각을 맞이하게 된 전투원들의 격정과 환희로 세차게 끓어번지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주석단에 나오시자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이 장내를 진감하였다.

당의 군대, 인민의 군대로서의 용감한 본분을 다한 전사들의 마땅한 노력과 투쟁을 조선인민군의 전투적로정에 특기할 영웅적위훈으로 값높이 내세워주시고도 그 무엇이 부족하신듯 온 나라가 다 알고 온 세계가 다 지켜보도록 또다시 내세워주시고 다시금 축하해주시기 위해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주신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에 대한 다함없는 고마움으로 하여 장내는 격동의 바다를 이루었다.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축하연설

을 하시였다. 김정은 원수님께서서는 수도의 방역위기를 평정하는데서 군의부문 전투원들이 누구보다도 수고를 많이 하였다고 하시면서 국가방역투쟁의 승패를 결정하는 관건적인 중심전투지역인 수도방역전장에서 굴함없는 신심과 용기를 안고 분투, 활약함으로써 우리 군대의 견인불발의 정신과 백전백승의 전투력, 당군의 고귀한 품도와 아름다운 절개를 과시한 전투원들에게 당과 조국, 인민의 이름으로 뜨거운 감사를 주시였다.

김정은 원수님께서서는 수도방역전투에서 발휘된 전투원들의 용감성과 희생성은 자기 사령관의 마음속진정을 제일 잘 알고 그 뜻을 따르는 길에서 주저함을 모르는 우리 군인들의 남다른 충심에서 분출된 정신적특질이라는데 대하여 언명 하시였다.

김정은 원수님께서서는 우리 당에 무한히 충직한 혁명전사, 인민의 아들, 친형제, 이것이 91일간의 성스러운 전투행정에 평양시민들의 뇌리에 찍혀진 군의부문 전투원들의 참모습이었다고 하시면서

결사적인 투쟁으로 당의 명령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사선을 헤치는 우리 군대의 전투적면모를 과시하고 우리 사회의 밑뿌리인 군민대단결의 고귀한 혁명적재부를 굳건히 보위한 전투원들의 혁혁한 공훈을 높이 평가하시였다.

김정은 원수님께서서는 인민의 군대라는 신성하고 영광스러운 부름앞에 언제나 멋쟁이 미더운 혁명군대를 가지고있는 우리 당의 크나큰 긍지와 자부수에 대하여 피력하시면서 전체 참가자들이 앞으로 더 위대한 우리 국가를 위하여, 위대한

희적으로 더욱 승화, 분출시키는데 적극 기여한 전투원들의 손을 일일이 잡아주시며 그들의 수고를 헤아려주시였다.

김정은 원수님께서서는 인민사수의 전방에서 빛나는 공훈을 세운 전투원들이 앞으로 우리 인민이 마음놓고 무병무탈하게 사는 귀중한 보금자리, 사회주의 내 조국을 굳건히 지켜가는 유능한 야전군, 야전명의로 훌륭한 자욱을 계속 새겨갈것을 바라시며 그들을 사랑의 한뼘에 안으시고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본사기자



수도의 방역위기를 평정한 인민군군의부문 전투원들을 축하한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조선인민군 군의부문 전투원들앞에서 하신 연설

주제 111 (2022)년 8월 18일

수도의 방역전에서 용감하게 싸운 영웅한 군의부문 전투원동무들!

오늘 우리는 여기에 그 무슨 축하사업을 하거나 특별한 과업을 제시하는 회의로서 모여앉은것이 아닙니다.

그저 누구보다도 수고를 많이 한 동무들을 내가 직접 만나보고 표창도 크게 하고 기념으로 함께 사진도 찍어주고싶어서입니다.

방역위기가 지나가고 어느덧 동무들이 수도의 거리들을 떠났다는 보고를 받고 며칠째 왜서인지 계속 허전하기만 하고 동무들생각이 계속 들었고 무엇인가 못해준것에 마음속아쉬움을 덜수가 없었습니다.

더구나 수천명의 전투원들이 시민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자고 공식적인 환송의식도 없이 깊은 밤, 이른 새벽에 조용히 떠났다는 보고를 받고보니 당의 군대, 인민의 군대로서의 도리에 충실하려는 동무들생각이 더 깊고 무엇인가 해주고싶은 생각이 더 들었습니다.

동무들이 누구를 위해 싸웠는가, 어떻게 싸웠는가에 대한 진정한 평가는 전투임무를 마치고 남몰래 떠나는 동무들을 바라보며 인민들의 눈가에 맺혔던 뜨거운 눈물이 다 말해주었습니다.

인민이 마음으로 내린 이 평가는 억만금을 주고서도 얻을수 없는 가장 고귀한 평가이며 혁명군대 군인들로서 받아안을수 있는 가장 값있는 표창입니다.

나는 동무들의 귀대소식을 뒤늦게야 알고 서운한 마음을 누르지 못했다. 수도시민들의 마음까지 합쳐 동무들을 이렇게 직접 만나 격려도 해주고 동무들의 수고와 위훈을 온 나라가 다 알게 다시한번 크게 평가해주자고 오늘 군의부문 전투원동무들을 모이라고 명령했습니다.

군의부문 전투원동무들! 내가 응당 이미 이런 자리를 마련했어야 했는데 동무들에게 정말 미안한 마음입니다.

희생을 각오하고서라도 인민을 지켜야 하는것이 동무들의 본연의 임무이겠지만 동무들건강, 동무들의 안녕 또한 나에게서는 하나도 잃을수 없는 피와 살점과 같기에 방역투쟁 기간이kest비무스와 직접 조우해야 하는 동무들걱정 또한 컸습니다.

그런데 수도방역전장을 지켜냈던 모든 동무들의 이렇듯 건강하고 활기에 넘친 모습을 보니 얼마나 기쁘지 모르겠습니다.

때문에 방역전에서 승리한 동무들에게 축하의 인사보다 앞서 모두가 그 위기를 먼저 그리고 이렇게 건강해준것이 고맙고 또 고맙다는 말을 더저 하게 됩니다.

동무들! 이번에 정말 잘 싸웠습니다. 당과 조국, 인민의 이름으로 동무들에게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번 전국비상방역총화회의에서 군의부문 전투원들의 투쟁성과를 평가했듯이 정말 이번에 동무들이 91일간 수도보위, 인민보위전에서 굴함없는 심심과 용기를 안고 헌신하며 많은 수고를 하였습니다. 동무들이 투쟁한 수도전지역은 국가방역투쟁의 승패를 결정하는 관건적인 중심전투지역이었습니다.

나는 아직도 그날의 그 다급했던 시각 동무들을 수도방역전투에 투입하기 위한 명령서에 수표하던 그 순간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오늘 동무들을 이렇게 마주하고 이 자리에 서니 나라에 들이닥친 돌발적인 전염병확산으로 국가최대방역위기사태가 발령되고 그로 하여 수도는 물론 온 나라가 마치 어디론가 훌쩍 떠나가자라도 한듯 숨죽은듯이 조용했던 지난 5월 14일과 15일의 그밤 사람한명 찾아볼수 없는 텅 빈 거리들을 돌아보며 무너져내리는 마음을 가까스로 다잡던 순간도 생생히 떠오르고 처음 맞닥뜨린 보건사태로 약국들에 의약품이 수요대로 공급되지 않아 줄을 서고 붐비는 주민들의 모습을 안타깝게 바라보지만 할수밖에 없었던 순간들, 그리고 매일같이 폭발적으로 급증하는 전염병전과상황을 보고받던 순간들도 떠오르고 가장 어려웠던 순간 우리 군대에 운명처럼 마음과 믿음을 통채로 맡기고싶던 그 나날들에 내가 느꼈던 그 심정을 다시금 돌이켜보게 됩니다.

나라앞에 닥친 위기에 대처하여 국가방역체계가 최태위기대응체제로 이행한 4일만인 5월 15일 우리

당중앙위원회 정치국과 당중앙군사위원회는 나라에 조성된 보건사태를 분석하고 악성전염병의 전과형세에 결격히 항거하여 전면적이고 총체적인 결집들을 채택하였으며 그 중요한 조치의 일환으로서 바로 동무들, 인민군군의부문 전투원들을 수도사전에 불렀습니다.

동무들은 이번 보건사태를 평정하는 전 전투행정에 간고한 노력으로써 우리 당이 기대한 이상으로 우리 군대의 견인발발의 정신과 백전백승의 전투력, 당군의 고상한 품모와 아름다운 절개를 넘치도록 보여주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인민군대가 이번에 진행한 수도보위전들은 시작부터 끝까지 정말 나무랄데 없는 만점짜리 작전이었습니다.

나라가 위급한 상황에 처하였을 때에 전쟁을 위하여 준비된 인민군대 군의부문이 제일선에 진입한것 자체가 전국의 비상방역분위기에 심신을 주고 열병전과에 우려하던 인민들에게 용기를 주는데서나 방역전장을 역전시키는데서 커다란 의의를 가지었습니다.

사실 인민군군의부문 전투원들이 아니었다면 이번 최대비상방역전이 더 간고해지고 힘들어질뻔하였습니다.

여가의 위기관리에 중추가 되고 최후보루가 되어야 할 수도가 오히려 방역형세가 제일 위험하였던 시기 수도당조직은 물론 국가기관들도 미처 대응하지 못하고있는 상황에서 우리 당중앙이 믿을것은 인민군대 군의부문뿐이었습니다.

동무들은 자신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투쟁으로써 비상방역전의 요진통으로 되고있던 수도의 약품보장사업에 군의부문의 정예력량을 전격전입시킨 당중앙의 결심이 실패하고 당중앙의 믿음과 기대가 헛되지 않았다는것을 명백히 실증하였습니다.

누구라 할것없이 처음 맞닥뜨린 위기였기에 불안감도 컸던 그 시각 동무들이 보여준 용감성과 희생성은 자기 사령관의 마음속진정을 제일 잘 알고 그 뜻을 따르는 길에서 주저함을 모르는 우리 군인들의 남다른 충성에서 분출된 정신적특질이었습니다.

사회의 각계각층, 남녀노소를 대상으로 약품을 신속히 보장해주고 치료정형까지 관철해야 하는 일은 누구에게나 처음이었지만 모든 전투원들이 당중앙의 명령에 대한 절대적인 충실성, 인민에 대한 무조건적인 사랑과 헌신의 정신으로 약국에서 일하는 전문의료인들도 생각이 못했던 구제성과 세심성, 정성을 기울이면서 훌륭한 소행들을 발휘하였습니다.

동무들은 결코 군복입은 의료인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당에 무한히 충직한 혁명전사, 인민의 아들, 친형제, 이것이 91일간의 성스러운 전투행정에 평양시민들의 나라에 찍혀진 군의부문 전투원들의 참모습이었습니다.

수도의 약국들에 과전된 동무들이 받은 명령은 약품수송과 공급을 안정시키는것이였지만 모든 전투원들이 인민들의 생명수호와 건강보호를 위해 할수 있는 모든것을 다하였습니다.

어느 누구라 할것없이 련일 계속되는 철야근무로 상상을 초월하는 육체적 및 심리적피로가 극도에 달한 속에서도 약품이 필요한 세대들을 찾아 폭염속에 뛰어들고 장악한 유열자들이 깨끗이 병을 털어 버릴 때까지 찾고 또 찾으며 정성을 다하는것을 응당한 본분으로 여기었습니다.

전염병치료약품 아니라 건강회복에 좋은 보약을 구해가지고 전염병병들과 영예군인들, 공로자들의 가정을 찾은 소행, 사경에 처한 환자소생을 위해 자기의 피를 수혈하고 자기 입으로 막힌 송길을 열어준 소행, 공급된 전투식량을 서슴없이 덜어내고 부모들이 보내준 현금을 아낌없이 털어 어려운 세대들에 주부식물을 나누어준 소행을 비롯하여 어느것 하나 인민을 감동시키지 않은것이안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훌륭하다고 생각되는것은 인민들과 접촉함에, 인민들을 대함에 항상 뜨겁게 흘러넘친 우리 군대의 진정였습니다.

우리 인민들은 자기가 앓을 때 약이나 식품을 가져다주어서만 인민군대를 아들이나 형제로 여긴것이 아닙니다.

한집안식구보다 더 다식하고 정성스럽게 걱정해주

고 심신을 다해 보살피주며 자신을 갇그리 바치는 군인들의 효도를 온몸으로 느끼였기에 스스럼없이 고마운 우리 군대, 우리 아들, 우리 손자라는 부름이 흘러나오는것입니다.

우리 군의부문 전투원들중에는 가정의 불상사와 위태로운 부모처자들의 소식을 듣고도 아픔과 고통을 신성한 사명감으로 참아 이겨내면서 수도시민들에게 정을 쏟아부은 동무들이 있는가 하면 신병으로 고생하면서도 헌신의 길을 멈추없이 걷다가 희생된 지휘관, 대원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들은 명명만으로는 도저히 실행할수도 없고 바랄수도 없는 미저로서 오직 우리 군대의 고상한 정신도덕적품모로써만 이루어낼수 있고 설명될수 있는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군의부문 전투원들이 잘했다고 볼수 있는 몇가지 사실을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수도당조직들을 통하여 여러번 제기되었는데 인민들속에서 인민군대가 너무하다는 신소 아닌 신소가 그렇게 없었습니다.

인민들이 군의부문 전투원들의 다른 행동에 대하여서는 다 뜨겁게 고마워하면서도 자기들의 소박한 성의를 좀체 받으려 하지 않고 물과 공기만 있으면 된다고 하는 자세와 태도에 대해서는 매우 섭섭하고 서운해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나는 어떤 정황속에서도 인민들에게 사소한 부담도 끼쳐서는 안된다는 우리 인민군대고유의 정신도덕적기강을 이번 수도비상방역전에서도 고수한것이 응당하며 대단히 잘했다고 평가합니다.

그리고 어떤 동무들은 지난 기간 나라앞에 죄를 지은것으로 하여 약국을 찾지 주저하는 주민세대들에도 약품을 전해주면서 우리 제도의 혜택이 빠짐없이 가닿게 하였다는데 정말로 잘했습니다.

단순히 명령을 그대로 집행하는 군인으로서만이 아니라 당의 의도와 정책을 잘 알고 정치적으로 옳게 사고하고 행동할줄 아는 이런 훌륭한 기풍, 정치사상강군의 진면모를 재확인하게 된것을 우리 당은 그 무엇보다도 제일로 기쁘게, 만족하게 생각합니다.

의약품공급단위들에 대한 약품수송을 맡은 전투원들도 낮과 밤이 따로없이 수도의 거리와 마을들을 누비며 필수약품을 기동적으로 보장하면서 인민을 위한 좋은 일을 많이 찾아하였습니다.

이번 우리 인민군대의 고결하고 헌신적인 정신적품모가 수도시민들을 전염병공포의 위기속에서 일으켜세운 불사의 힘이 되었고 공산주의미덕과 미풍을 전사회적으로 더욱 승화, 분출시킨 기폭제로 되었고 봅니다.

나는 이번 비상방역전에서 군의부문 전투원들이 스스로 발휘한 소행과 투쟁성과들을 보고받을 때마다 이같이 훌륭한 동무들을 군대에 내보낸 부모님들과 형제들은 얼마나 대견스러워하고 또 안헤와 자식들은 얼마나 자랑스러워하겠는가 하는것이 생각되면서 더 내세워주고싶고 평가해주고싶었습니다.

비록 목숨을 겨냥한 총탄은 날아다니지 않았지만 목숨을 위협하는 비루스를 박멸하는 투쟁에 서슴없이 나서서 인민들을 수호한 동무들모두는 오늘의 화선군, 전투영웅들입니다.

동무들의 결사적인 투쟁으로 하여 당의 명령이라든 불붙을 가지지 않고 사신을 헤치는 우리 군대의 전투적면모가 남김없이 과시되었을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밑뿌리인 군민대단결의 고귀한 혁명적재부가 굳건히 보위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군대가 적들과의 군사적충돌만이 아닌 시시각각 국가의 안전과 인민의 생명제산을 위협하는 비군사적인 도전에도 당당히 맞서 승리할수 있는 완벽한 능력을 유감없이 보여주었습니다.

나는 당중앙군사위원회 특별명령을 접수한 장령으로부터 군관, 병사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전투원들이 당과 혁명에 대한 충실성, 인민에 대한 헌신성, 국가에 대한 애국심을 최대로 발휘하여 영웅하게 싸움으로써 방역대응을 앞당기는데 혁혁하게 공헌한데 대하여 당중비서로서, 공화국부력의 총사령관으로서 매우 자랑스럽게 간주하며 높이 평가합니다.

군의부문 전투원동무들! 동무들자신이 이번에 절실히 느꼈겠지만 인민군대에 대한 당과 인민의 기대는 대단히 크며 군의부

문의 전투능력을 향상시키는것은 평시이나 전시이나 필수적인 요구로 나섭니다.

특히 인민군대 군의부문의 현대적발전과 싸움준비완성이 전쟁수행에서 가지는 의의는 더욱 부각되고있습니다.

우리 군대가 치열한 전쟁상황에서 자기의 령량을 계속 보존해야 목적인 군사전략적임무를 수행할수 있다는 견지에서 볼 때 군의부문의 역할이 정말 중요했습니다.

인민군군의부문은 앞으로 전쟁수행의 인적잠재력을 보장하는데서 말고있는 본연의 사명에 맞게 당의 군사과학사상과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하며 나라의 보건방선을 공고히 하고 발전시키는데서 앞장서야 합니다.

이번 비상방역전에서 발휘된 높은 충성심과 애민정신, 고상한 인간성에 발전된 의과학기술이 결합될 때 그 어떤 치료전투도, 공공보건위기도 능숙히 감당할수 있습니다.

인민군군의부문의 원종장인 림춘추군의대학은 마땅히 군의력양육성과 군진의학발전에서 선도적, 핵심적역할을 하여야 하며 교육사업전반을 일신시키는데서도 기치를 들고 온 나라의 모범이 되여야 합니다.

대학에서는 교직원, 학생들의 의과학리론수준과 림상기술수준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현대교육학의 원리에 맞게 교육내용과 방법, 수단을 부단히 혁신하여 모든 졸업생들을 전시기의보장을 자립적으로 원만히 할수 있는 유능한 야전군의, 야전명의로 키워내야 하겠습니다.

변화되는 전쟁환경과 세계군진의학발전추세에 맞게 우리 식의 야전치료방법을 더욱 연구완성하고 의료설비와 기체들을 현대화하는데도 힘을 넣어 군의부문 싸움준비완성에 적극 기여하여야 하겠습니다.

대학에서는 이번 최대비상방역전에서 이룩한 성과에 절대로 자만하지 말고 좋은 경험은 장려, 확대하고 부족한 점들은 퇴치, 보강하면서 당사업과 교무행정사업을 더욱 강화해나가야 합니다.

인민군총정치국과 각급 당조직들에서는 군의부문 전투원들이 발휘한 훌륭한 투쟁기풍으로 전군을 교양하고 모범을 일반화하기 위한 정치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

군의부문 전투원동무들! 이번 최대비상방역전에 참전하여 인민을 위한 우리 군대의 헌신적투쟁행동에 뚜렷한 자욱을 새긴것은 인민군군의부문 전투원들의 영광이며 남다른 영예입니다.

지난 91일간 동무들이 전투기록장에 새겨온 충성과 애국, 사랑과 헌신의 자욱자욱은 잊을수 없는 추억으로 길이 남아 조국과 인민을 위한 복무의 한생을 영연히 끊임없이 이끌어줄것입니다.

동무들은 당중앙의 심판과 기대를 항상 명심하고 앞으로도 이처럼 훌륭한 자욱을 계속 새겨나갈수 있게 꾸준히 노력하여 정치사상적으로, 기술실무적으로 만단의 준비를 갖추고있어야 합니다.

동무들! 인민의 군대, 이 신성하고 영광스러운 부름앞에 언제나 떳떳하기 위해 당에 충실하고 인민에게 헌신하는 우리 혁명군대 조선인민군의 전투적로정에는 언제나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것입니다.

나는 오늘 마지막 피 한방울이 남을 때까지라도 결격히 싸워 우리 국가와 제도, 인민의 안전과 안녕을 무조건 지켜낼데 대해 내린 당의 중대명령을 받아안고 간고한 노력으로써 악성비무스를 격퇴하고 방역의 불퇴의 선을 끝끝내 사수함으로써 영예의 승리자들이 된 군의부문 전투원동무들과 우리 당과 국가력사에 길이 기록될 뜻깊은 승리의 기념촬영을 하자고 합니다.

동무들과 같은 충직한 장병들과 함께 혁명하는것이 정말 영광스럽고 자랑스럽습니다.

동무들! 위대한 우리 국가를 위하여, 위대한 우리 당을 위하여, 위대한 우리 인민을 위하여, 위대한 우리의 존엄과 명예를 위하여 충실히 복무해나아가십시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조선인민군 군의부문 전투원들과 뜻깊은 기념촬영을 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인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8월 18일 조선인민군 군의부문 전투원들과 함께 4.25문화회관 광장에서 조선로동당과 국가력사에 특기할 승리의 기념촬영을 하시였다.

백전백승의 조선로동당, 존엄높은 우리 국가의 강대함의 상징이시고 모든 승리와 영광의 기치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격동적인 축하연설을 받아안는데 이어 최대비상방역전의 승리가 선전된 력사적인 장소에서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고 대를 두고 길이 전해갈 영광의 기념사진을 찍게 된 군의부문 전투원들의 가슴가슴은 크나큰 감격과 열광으로 세차게 끓어올랐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나오시자 전체 참가자들은 미증유의 대동란속에서 운명

적인 죽난을 함몰에 걸머지고 비범한 예지와 초인간적인 정력, 탁월한 령도로 준엄한 방역전쟁을 대응으로 향도하시여 조국청사에 길이 빛날 만고불멸의 대업적을 이룩하시기도 그 모든 영예를 우리 인민과 인민군장병들에게 돌려주시는 김정은원수님께 최대의 경의를 삼가 드리며 활화와 같은 《만세!》의 환호성을 터치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 우리 인민의 귀중한 생명과 생활과 미래를 수호하기 위한 최대비상방역전에서 영웅적기상을 만천하에 과시한 미덥고 끝없는 화선군, 전투영웅들에게 뜨거운 담배를 보내시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 사상초유의 보견귀기를 선봉에서 평정하며 위대한 당에 대한 우리 인민의 신뢰심과 군민일치의 고귀한 전통을 결사보위한 당중앙별동대원

들의 혁혁한 공훈은 방역대전의 승전사와 더불어 조국과 인민의 추억속에 영원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시고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기념촬영이 끝나자 혁명적당군의 피끓는 심장들이 터치는 《김정은》, 《결사옹위》의 우렁찬 함성이 천지를 진감하며 메아리쳐갔다.

본사기자

불세출의 만고령장 김정은 원수님을 모시여 7.27의 전승신화는 영원불멸할것이다

승리란 무엇인가. 영원부구의 필승이란 무엇인가. 때때로 이 문구들을 되뇌일 때마다 나의 뇌리에는 저도 모르게 7.27이 금문자 마냥 선명히 부각되어 떠오르곤 한다. 7.27! 이는 위대한 나의 조국 주체조선의 영원한 승리의 상징, 필승의 대명사이다.

해마다 찾아오는 7.27이 어이하여 나를 솟구치는 환희로 설레이게 하고, 이 가슴을 용암보다 더 뜨거운 격정으로 끓여버지게 하는것인가.

포연서린 내 나라의 그 어디에서나 승리의 만세소리가 터져오르던 그때로 부터 수많은 세월의 년륜을 갈고들어 오늘에 이르는 69년간 천하무적의 핵강국으로 세계의 정상에 우뚝 솟아오른 영웅조선의 전승사는 7.27을 더욱 찬연히 빛내이고 그 의미를 비상이 더해주고있다.

내 삼가 옷깃을 여미고 8천만 우리 민족의 대령수이신 불세출의 만고령장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영상을 경건히 우러른다.

모래불마저 타버리던 불타는 락동강가까지 남진하였고 3년간의 전쟁을 화염타래치는 전호에서 싸운 나의 아버지와 가렬한 전투에서 희생된 삼촌의 마음을 그대로 담아 나의 미숙한 붓으로 승리와 영광의 7.27에 글다발을 엮어드리고자 한다.

1

나에게는 색바랜 사진이 있다. 전승의 날 나의 아버지가 포연탄우속에서 생사를 함께 하여온 전우들과 남긴 추억깊은 사진이다.

69년이라는 아득한 세월을 말해주듯 회미했던 사진이지만 나에게는 전승세대의 불멸의 군상으로 안겨온다.

아버지는 생존해계셨을 때 자주 이 사진들의 전우들에 대해, 전쟁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사진을 들여다보며 추억에 잠기려면 시간간의 아득한 차이는 없어지고 그들이 나에게 단단사연을 들려주는듯하다.

전쟁전에는 대개 농사군들이었다는 전우들, 땅처럼 무한히 순박했다는 사진속의 주인공들과 마음속대화를 나누게 될 때면 그 첫 대화자는 다름아닌 나의 아버지이다.

나의 아버지는 해방전 정든 고향땅을 떠나 류량봉에 오른 아버지의 손에 들려 중국 료녕성 관천현에서 화전을 일구며 생계를 이어왔다고 한다.

이국땅에서 살아본 사람만이 조국의 귀중함을 실감으로 느끼게 되는 법이다. 비록 토스레웃을 걸치고 땅을 푸지며 농사를 짓는 몸이지만 조국소식은 언제나 그들의 관심사였다.

일제패망후 남조선을 강점한 미제와 리승만피괴역적패당은 《북진》을 떠들며 속악산파와 과산, 양양과 용진을 비롯하여 38°선일대의 이르는 곳마다에서 공화국복반부에 대한 무력침공을 끊임 없이 감행하였다.

일제의 식민지통치 밑에서 짐승만도 못한 노예살이를 한것도 부족하여 또다시 이 땅을 미제의 식민지로 만들어 한 단 말인가.

조국으로 나가자. 조국을 지키자. 미제와 리승만역도의 《북진》소동을 막아야 한다.

누가 요구한것도 없었다. 강요는 더욱 아니었다.

아버지와 삼촌은 조국으로 향하였다. 조국보위의 그 마음이 얼마나 소중하고 값진것으로 되는지, 인생의 영광으로 이어지는지 그때는 미처 알지 못한 아버지와 삼촌이었다.

만고절세의 애국자, 민족재생의 구세주이신 김일성장군님께서 무명의 자기를 만나주시길이야 어이 알았으며 조국보위의 귀국길을 애국의 길로 그리도 높이 내세워주시길 꿈틀들 상상했는가.

한생토록 잊지 못할 영광의 절정이었다. 어떤 삶이 애국이고 참다운 인생은 어디에 있는가를 다시금 깊이 절감하였다.

나의 아버지의 이 자각은 한생토록 불변이었다. 그리고 가렬치절한 전화의 나날에 서리받치는 원수님렬로 유감없이 발휘되었다.

칠월야밤에 단신으로 미군고문놈과 피뢰군장교 9놈을 통째로 생포한 전투

공로를 세웠고 근위 제6보병사단의 포병련대에서 개성시와 김포비행장에 대한 해방작전에 참가하였으며 락동강까지 진격하였던 아버지는 그후 전승의 그날까지 포신이 식을 사이없이 원수들을 무자비하게 쓸어놓으리었다고 한다.

오늘도 우리 집의 가장 귀중한 가보는 아버지의 색날은 군복에서 빛나는 전쟁시기 수여받은 국기훈장 제1급과 6개의 군공메달들, 19살청춘을 아낌없이 바친 삼촌의 털사중이다.

이는 우리 아버지세대가 딸이 아닌 실천으로, 맹세가 아닌 피로써 조국을 지켰음을 보여주는 값높은 증거로 된다.

깊은 추억속에 사진을 다시 들여다보노라면 아버지가 그로록 잊지 못해하던 전화의 주인공들이 금시 그때의 모습으로 살아움직이는것만 같다.

그중에서도 소대전우들에게 《벼아바이》로 불리었다는 외출배기 상동병아바이의 모습이 나의 심신을 끌어당긴다.

볼소나기가 쏟아져내리고 노호한 철과 철의 대결속에서도 전투의 일환이 되던 온 소대가 의례히 그의 곁으로 모여앉곤 했다고 한다.

전호가에 감도는 구수한 마차조연기와 함께 그가 못있어 회억하는 고향이야기가 전우들의 심금을 울려주고 두고 온 고향에 대한 향취를 더해주었기 때문이다.

그가 입버릇처럼 외웠다는 벼이야기는 얼마나 방불한지 지금도 마치 내가 직접 듣고 체험해본듯하다.

대대로 소작을 살며 농사일로 허리가 굽은 상동병아바이에게 있어서 벼에 대한 애착이랄까 땅에 대한 사랑이랄까 하여튼 그것은 너무나 폭진하였다.

농사군의 평생소망인 땅을 분어해주신 김일성장군님께 고마움의 인사로 잘 익은 벼를 드리고싶어 출창 논밭에서 삼그었다고 한다.

그에게 있어서 불철에 눈으로 흘리든 는 물줄기는 삶의 회일이었고 여름철에 키돋음을 하는 푸른빛의 벼는 삶의 보람이었으며 가을철에 물결치는 황금빛의 벼는 삶의 최절정이었다.

그 벼가 구리빛털을 번쩍이는 황소가 되어 외양간에 들어섰고 아무리 들어도 성치지 않는 채봉침의 사르랑소리로 되었으며 흉년새만 나던 몸에 난생 처음 양복이 되어 입혀졌다.

누가 벼를 한갓 쌀이라고 하였던가. 아바이에게 있어서 벼는 삶의 전부, 운명의 전부, 이 세상 전부였다.

그렇수록 천덕구리개발자를 지주부립이 사무치게 고마워 감사의 눈물을 억제하지 못하였고 잘 익은 옥백미를 알알이 골라 선함으로 애국미부터 바쳤다는 것이다.

그런데 어디선가 날아든 미국놈들의 공중비적들이 멸곤 폭탄들이 그의 살결이나 다름없는 논밭을 사정없이 도륙했다.

억이 막혔다. 저도 모르게 불편을 적시며 흘려내린 눈물은 퍼뼉이었다.

《벼는 내 인생의 전부였다. 벼가 자라는 논을 무차별적으로 사정없이 파괴된 폭탄은 내 심장을 통째로 판도질해낸것이나 다름없었다네. 농사군의 고통중에 그보다 더 큰 고통이 어디 있겠나. 그래서 야야 나는 내 삶의 기쁨과 행복의 전부로 여겼고 그 벼에 조국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네. 이 한복속 다 바쳐 우리 장군님 주신 그 땅. 그 벼를 지키자고 반백의 나이에 이렇게 전선으로 나왔다.》

불라는 고지에 있을 때나 남진의 길에 오늘 때나 상동병아바이에게는 눈에 뜨이는 모든것이 고향땅의 벼처럼 소중하였다고 한다.

황토먼지가 흩날리는 남녘의 드넓은 논판을 지날 때면 고향땅의 구수한 난알향기를 떠올렸고 강기슭의 울퉁불퉁한 돌서덜길에 발걸이 채일 때도 하루빨리 승리하고 고향땅에 돌아간 행배기의 논이라도 더 풀어야겠다는 다짐을 하였으며 달구지에 원호물자를 싣고온 얼룩소를 보면 욱토를 갈아엎던 고향집 누렁소생각이나 군용방통의 밤을 통째로 쏟아 먹이기도 한 그였다.

조선전쟁은 이런 소박한 사람들이, 배풀어준 은덕에 보답을 알고 평화로운 삶을 해치는 불의를 절대로 용납치 않는 이런 정의의 인민이 치른 전쟁이었다.

호미를 잡았던 거울진 손에 든 보병총이 적기를 좌멸구고 논밭을 갈아엎던 보장이가 땅코를 물고 적진을 매주 밟듯 돌진하였으며 창공의 비행기를 쏘

중국 베이징금천동력과학기술유한공사 총경리 김영관

기하게 바라보던 청년이 생발기로 미제 침략군의 《B-29》를 좌멸구는 공중전의 신화를 창조하고 목선을 타던 어부가 어뢰정을 물고 적중순양함 《볼티모》호를 격침하여 세계해전사의 기적을 창조하였다.

장구한 인류사는 전쟁을 파괴와 살육의 대명사라고 규정하였다.

하나 조선인민에게 있어서 6.25전쟁은 단순히 적야생방의 군사적대결만이 아니었다.

난생처음 받아안은 참된 삶에 대한 무한대의 사랑이었고 그것을 빼앗으려는 날강도침략자들에 대한 격노한 증오와 보복의 불출이었으며 생명의 은인이신 김일성장군님을 받들고 백성된 도리를 다하는 길이었다.

그래서 어디서나 만날수 있는 평범한 사람들이 전화의 영웅으로, 전쟁로병으로, 후세가 존경해마지 않는 위대한 년대의 전승세대가 되었다.

오늘도 미국의 전쟁사가들은 7.27에 대한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고있다고 한다. 그럴만도 하다.

령토는 78 대 1, 인구는 10 대 1, 건국사는 174년 대 2년, 경제력과 군사력은 아예 비교조차 불가능... 군사력의 차이는 말그대로 천양지차였다.

100차례가 훨씬 넘는 전쟁들에서 단 한번도 패한적이 없었다 미제가 조선전쟁에 투입한 추종국군대들까지 포함한 다면 비교 그자체가 어불성설이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보병총과 자탄탄의 대결이냐고 하는지도 모른다.

원자탄을 이긴 보병총의 주인공들은 과연 누구였는가.

장군님 주신 땅 에루화 데루화 모두가 떨치나 별갈이가세의 흥겨운 노래를 부르며 발을 갈던 농민들, 태어나 처음으로 남녀평등권, 8시간노동제, 유급휴가제의 혜택속에 공장의 주인이 되어 새 생활을 꾸려가던 로동자들이었다.

너무나도 수수한 사람들이었다. 이 소박하고 어진 인민을 알고보고 침략전쟁을 3일만에 끝내겠다는 미제의 호언장담은 세계의 면전에서 1, 129일만에 항복서와도 같은 정전협정체결로 뒤바뀌었다. 이는 세계전쟁사에 일찌기 있어보지 못한 전설속의 신화였다.

어제날 낮놓고 기속자도 모르고 착취와 압박을 속명처럼 감수하던 이 나라 백성들을 미제와 제국주의련합세력을 타승한 일격결승의 주인공도, 전승신화의 창조자로 이끌어주신분은 회세의 령장이신 김일성장군님이시었다.

전쟁발발이라는 솜뭉치는 위기일발의 준엄한 시각에 호호랑랑 크게 웃으시며 미국놈들이 조선사람을 잘못 보았다고 하시던 김일성장군님의 음성은 세월의 언덕 넘어 오늘도 승리의 메아리로 울려 퍼지고있다.

세계전쟁사가 치켜세운 력대 명장들을 거약일의 조약돌처럼 초라하게 만들어 놓으시고 풍전등화에 놓여있던 신생조선을 이끄시어 세계의 경관과 의혹을 그려왔다는 신화적인 7.27을 탄생시킨 천재적인 군사전략가, 강철의 배짱이신 김일성장군님의 전승업적은 날과 달, 해와 년대가 바뀔수록 보다 큰 의미를 더해주며 길이 전해질것이다.

7.27은 탁월한 명장을 모신 주체조선, 영웅조선의 위대한 상징으로 되었다.

나는 《전쟁과 미국》이라는 미국도서의 한 부분을 여기에 인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력사적으로 고찰해볼 때 미국은 명성높은 장군들을 한두명 과견하여 전쟁의 승리를 획득하는데 슬관되어왔다. 그러나 조선전쟁은 미국의 장군들을 매장시키는 무덤이었다. 상대한 적의 북조선군총수 김일성장군은 30대의 젊은 장군이었다. 그분의 뛰어난 지략과 평군술에 의해 미국이 패전의 고배를 마신것은 수치스러운 대아메리카의 비극이 아닐수 없다.》

나는 때없이 생각해보는. 나는 때의인, 벼와 조국... 나라의 근본이 백성이라면, 농사군의 근본이 벼에 있다면 그들에게 제망을 주시고 농사를 하게 해주신 김일성장군님이시야말로 우리 인민의

구세주, 생명의 은인이 아니신가. 이 나라 백성들은 자기 운명의 전부이신 김일성장군님을 모위하고저 하나밖에 없는 청춘과 목숨을 웃으며 서슴없이 바치였다.

조선의 7.27은 진정한 삶의 향유자들이 돈과 재물에 팔린 고용병들을 력사의 무덤에 처넣은 위대한 전승이었으며 자기 수명을 받드는 인민의 힘을 당할 자 이 세상에 없다는 철리를 인류사에 값높이 아로새긴 불멸의 선언이다.

2

승리는 지켜야 빛나고 이어가야 영원한 법이다.

지난 4월 조국의 수도 김일성광장에 거행된 조선인민혁명군창건 90돐경축 열병식은 나의 가슴에 7.27의 심원한 의미를 다시금 새겨주는 또 하나의 계기로 되었다.

력대로 열병식은 해당 나라가 자기의 군사적힘과 위상을 보여주는 중요한 수단으로 간주되어왔다. 로씨야와 중국, 미국을 비롯한 대국들은 물론이고 작은 나라와 민족들도 다양한 계기때마다 성대한 열병식으로 승리를 자축하고 위세를 과시하는것은 그대문이다.

허나 내 조국의 4월열병식은 세계열병사에서 일찌기 있어보지 못한 전무후무한 열병식, 이 지구를 통째로 뒤흔든 사상초유의 특대열병식이였다.

신비하다는 말로는, 황홀함과 감탄만으로는 표현할수도 형용할수도 없는 대 화폭이였다.

김일성장군님의 존함을 모신 광장에서 김일성장군님이 선포하신 조선인민혁명군창건일을 기념하여 진행되는 경축 열병식이여선지 전승의 력사가 맥맥히 이어지고있는 력사의 박동이 심장에 그대로 미쳐와 더욱 큰 감동을 받지 않을수 없었다.

화려함과 신비함, 황홀함과 완벽함에 완전히 넋을 잃고 심취된 나머지 열병식 전환간이 언제 어떻게 흘러갔는지 TV 화면이 바뀌었지만 그저 무아경에 잠겨 환성만 리진 나였다.

볼수록 위엄있고 장관이였다. 김일성광장에서 종횡한 화광과 명멸하는 불야경속에 충렬하고 박력있는 군악소리에 맞춰 승리의 열병광장을 보무당당히 누벼나가는 열병대이며 평양의 밤하늘가에 장쾌한 동음들이 오색평통한 축모란을 터치며 경축의 불보라를 휘황찬란하게 뿌리던 붉은 참매들의 위용은 으뜸의 절정이었다.

그중에서도 나의 이목을 그리잡은것은 심야의 이 행성을 끌끄는 격동속에 진강시키며 위대한 김정은총수님의 강용함과 그 위세의 무한대함을 만방에 떨친 절대적힘의 실제-초강력무장장비들이였다.

《담대하 조선이 나갑니다. 위대한 인민이 나갑니다. 조선의 화성포가 힘차게 전진합니다.》라고 세계를 향하여 격정을 락트하던 조국의 영명방송원의 창봉은 목소리가 지극도 들려오는것만 같다.

정병 무장장비의 단순한 위력시위가 아니였다.

세계열병사는 물론 이 지구상 어느 나라 군대도 감히 상상해볼수도 모방해볼수도 견주어볼수도 없는 세계최고의 대표작, 세계초유의 열병대축진이였다.

세인에게 정의와 평화를 지켜낼 만능의 힘이 과연 무엇인가를 긴 실명없이 직관적으로 보여주고 심장으로 절감케한 완전무결함과 최절정의 극치를 이룬 세계적인 국력시위였다.

이 땅의 어느 누구를 감회없는 생각에 잠기지 않을수 있겠는가.

포연이 서린 폐허우에서 거행되던 전승열병식을 생생히도 기억하고있는 우리들이다.

그때로부터 69년이 흐른 오늘 바로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모시여 내 조국은 세계가 부러워하는 필승과 영망무궁의 대열병식을 거행할수 있는것이 아닌가.

그것은 절대적힘의 실체가 무엇인가를 과시한 천하강국의 참다운 모습이였고 약육양식의 야욕으로 세계를 괴롭히고 짓밟는 불의와 폭제의 힘이 궁

극적과멸을 선언하는 정의의 힘의 일대 시위였다.

가렬치절했던 조선전쟁의 나날 락동강모래물에 피눈물을 쏟으며 돌아서야 했던 나의 아버지가, 애끓은 나이에 원수님렬의 결전장에 꽃나이청춘을 바친 삼촌이 떠오른다.

그들이 살아있다면 얼마나 기뻐하라는 생각에서이다.

전쟁이 끝난 후 아버지는 조국을 떠나 부모처자가 있는 중국 료녕성 관천현으로 돌아왔다.

평상시 무척 과묵한 아버지였지만 주변사람들에게 전쟁시기 피흘리며 싸운 이야기를 감동깊게 들려줄 때마다 격조높은 어조였으며 전쟁때 다친 여러곳의 부상자리로 고통을 받으면서도 자식들에게 조국의 귀중함을 베풀어주시는 듯이 도록 말해주어 성장의 밑거름이 되도록 해주었다.

내가 조국의 강국건설에 미력하거나 기여하고있는것도 아버지의 영향이 컸기때문이다.

4월의 열병광장이 우리 해외동포들 모두의 이목을 사로잡은것은 심야의 황홀한 신비경속에 하늘끝까지 치달은 내 조국의 무진막강한 힘에 대한 찬탄만이 아니라.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모시여 굽부상하는 정의로운 내 조국의 위용과 전대미문의 후독한 시련과 난관속에서도 굴함없이 오직 하나 비약과 전진만을 아는 무한대의 저력이 우리 가슴에 천원안팎같이 들어앉는다.

승리는 언제나 김정은 원수님의것, 우리의것이랴는 남다른 자부과 절대적인 신념이 더욱 굳세여진다.

그래서 내 조국은 너무도 성스럽고 너무도 눈부시고 너무도 위대한것이 아닌가.

언제인가 나는 일본의 어느 한 신문에 실린 옛 《황군》의 열병행진이라는 것을 본적이 있다.

지난날 《대동아공영권》을 부르짖으며 조선과 만주땅을 피바다로 만들었던 일제의 100만관동군의 《위용》이 부러워시던지 시누런 《황군》누대기를 걸치고 일본토를 허리춤에 찬 사무라이후예들이 일장기와 옥일기를 흔들며 도심을 누벼대고 특급전병자들의 위개가 보관되어있는 야스구니전자앞에서 옛 땅상을 생취해보겠더냐 패배자들의 복수야망을 토해내는 추한 물물들이였다.

세대가 수차례 바뀌었지만 패자의 양갈음을 노리는 일본반동들의 패자어린 살통경과 대조선적대시를 국책으로 하고 북침의 기회만을 엿보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전쟁연습행동이 순간도 멈추지 않고있는 오늘날 정의와 진리의 수호를 본분으로 하고 군력강세에 총력을 기울이는 내 조국의 모습은 얼마나 강한것인가.

내 조국은 이 행성의 초강국이다. 가슴부드러운 궁지속에 지난 3월 24일 세계최대급의 절대병기 《화성포-17》형대륙간탄도미사일시험발사의 폐거가 떠오른다.

《세계무기고에 전무한 《화성포-17》형시험발사의 대성공은 누리에 찬란히 빛나는 우리 조국-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전략적지위를 이 행성의 최고봉에 우뚝 올려세운 특대사건이며 반만년민족사의 최고속원을 풀어준 경사중의 대경사이다.

그 대성공의 포성은 일단 결심하면 반드시 실천하고 실천하면 반드시 세계사적인 위대한 승전패거를 이루어내시는 위대한 우리 원수님의 강철의 탄력과 불굴의 의지가 다시한번 이 행성을 통째로 진강시킨 정의의 퇴성, 필승의 퇴성이였다.

정말 가슴이 벅차오르기만 하다. 많이 약한 탓에 그리도 수난 많고 눈물 많던 우리 민족의 불우한 과거사가 되풀이되지 않게 하려고 우리 원수님렬을 마련하여주시 주체조선의 응결체, 무적 필승의 만년보검이였다.

《9대핵보유국》
《6대소산핵보유국》
《6대대륙간탄도미사일보유국》
《7대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보유국》
《4대초음속미사일보유국》...

이것은 세계최고봉에 당당히 올라선 우리 조국의 전략적지위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내 눈길들이 대성산 주작봉마루의 함일렬사들과 석박산기슭의 참전로병들을

바라본다. 그리고 나의 아버지와 삼촌을 생각해본다.

그들이 주황색화염을 내뿜으며 만리대공에 치달아오르는 거대한 힘의 실체를 보았다면, 위도와 경도를 초월하여 전 지구를 작전무대로 삼고있는 이 주체의 타격체를 보았더라면 얼마나 기뻐하며 탄성을 터치였겠는가.

해외에 있는 우리 동포들도 그 위력의 무한대함을 다 알고있다.

《조선이 세계를 다스린다.》
《김정은령도자는 워싱턴, 도쿄가 발편장을 잘수 없게 만들었다.》
《북미싸일은 누구도 부정할수 없는 세계적사건》

《앞으로 60년동안 미사일방위체계개발에 3, 500억US\$를 쏟아부어도 《효과적대응》 불가능》...

내 조국이 대성공을 이룩한 날은 미국을 위시로 한 서방나라들이 나토수뇌자회의와 7개국수뇌자회의, 유럽동맹수뇌자회의를 동시에 함께 진행하기로 하고 한자리에 모여앉아 모의관을 벌려놓은 날이었다고 한다.

결국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이 행성의 부정부의 세력들을 대상으로 정의의 퇴성을 울리신것이다.

쩍하면 군사적동공을 휘두르며 이 행성의 곳곳에 피비린 죄악의 상처를 남겨놓는 바이든과 존슨, 기사타같은 놈들이 어찌 혼비백산하여 아우성치지 않을수 있겠는가.

우리 민족의 반만년속원을 풀어주기 위해 남모르는 협로역경의 사생길을 헤쳐오신 만고절세의 영웅 김정은원수님의 회생적인 헌신과 로고의 단단사건이 밀물처럼 파도쳐온다.

결코 애라게 비관한다고 하여 이룰수 없고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취이 성취할수 없는것이 천하강국의 목표이고 꿈이다.

부국강병을 위해 사생결단해오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이시야말로 이 행성의 유일한 정의의 화신이고 동서고공에 으뜸가는 불세출의 천하제일장군이시다.

끝없는 매혹과 흠모의 마음으로 되뇌여본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가장 위험천만한 사지에도 주저없이 나서신 우리 원수님의 심중속 가장 깊은 곳에서 힘과 용기를 배가로 분출시키고 역세게 떠밀어온 강인담대한 완강성의 원천은 무엇이었을까.

나는 감히 단언하고싶다. 그것은 조선 특유의 위대한 정신, 7.27정신이였다고 말이다.

아마도 세계최초의 핵보유국으로 일컫는 미국과 정면으로 맞서 기적과도 같은 전승신화를 창조한 김일성장군님의 7.27정신, 영웅조선의 7.27기적의 김정은원수님의 심중속에 힘차게 맥동쳤으리라.

우리 원수님처럼 7.27의 의미를 제일 소중히 간직하고 7.27을 제일 사랑하는 이는 이 세상에 없을것이다.

지금도 국방발전전략회 《자위-2021》 개막식에서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기념연설이 세찬 진폭으로 이 가슴을 울려준다.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강해야 합니다. 우선 강해지고보아야 합니다.》

참으로 그 어느 나라 군건설사의 갈피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주옥같은 명언, 목숨같은 명제이다.

불세의 국력이야 국련이고 인민의 존엄이며 후손만대의 영원한 번영이라는 진리를 빛나는 현실로 펼쳐놓은 김정은초강국.

경애하는 원수님을 높이 모신 조선의 절대적힘은 영원한 승리, 광휘로운 승리만을 기약하고있다.

나의 아버지세대가 1950년대의 전승세대로 불리었다면 우리의 후대들은 김정은시대에 미국의 완전항복을 받아낸 우리모두를 제2의 7.27전승세대로 길이 기억하게 되리라고 확신한다.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빛나고 더욱 깊게 아로새겨지는것이 7.27전승의 영원한 전통이다.

그래서 7.27은 더욱 빛난다. 그래서 7.27은 더욱 의미깊다.

나는 소리높이 웨치고싶다. 내 조국은 영원한 7.27의 승리로 무궁번영할 위대한 천하의 강국이다. 위대한 김정은원수님을 진두에 높이 모시여 주체조선의 7.27의 전승신화는 영원히 불멸할것이다.

영원 불멸할 조국수호의 천만리

정의는 총대에 의하여 담보된다. 아무리 참되고 옳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힘이 약하면 정의가 부정에 짓밟히게 되고 외곽되게 된다.

이 역사의 진리를 다시금 세계 앞에 각인시켜주신분, 정의는 무엇에 의하여 지켜지고 담보되는가를 더욱 깊이 새기게 하여주신분이 바로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이시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공화국무력에 대한 영도의 첫 자욱을 새기신 뜻깊은 날을 맞아 공화국인민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총대중시 사상을 받들어 공화국을 불패의 강국으로 강화발전시키신 그이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가슴뜨겁게 되새겨보고있다.

다 아는바와 같이 지난 세기 90년대 공화국인민이 당한 민족의 대국상과 편이던 자연재해 그리고 여러 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무너진것을 기회로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은 공화국을 대한 고립압살의 도수를 더욱 높였다.

적대세력의 압살책동에 맞서 존엄과 자주권을 지켜내는데가 아니면 굴복하여 제국주의의 노예가 되는가 하는 이 운명의 분기점에 있어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결연히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 인민의 안녕을 수호하기 위한 총대강화의 길을 선택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선택하신 이 길은 형언할수 없는 고통을 동반하고 지어 회개까지 각오해야 하는 사생결단의 길이었다. 이뿐이 아니었다. 불꺼진 거리와 마을, 숲속은 공장들을 뒤에 두고 전선길에 오르실 때 위대한 장군님께서 겪어야 했던 마음속아픔은 또 얼마나 큰것이었던가.

연제인이 위대한 장군님께서 사신 숲속은 공장들과 험겨운 생활난을 겪고있는 인민들의 정상을 눈앞에 보면서 공장이나 농촌이 아니라 군인들을 찾아 전선시찰의 길을 걷는 자신의 가슴은 형언할수 없이 쓰리고 아팠다고 하시면서 우리가 이제 승리의 통장훈을 부르게 될 때 인민들은 자신께서 왜 경제사정이 곤란하다는것을 알면서도 끊임없이 전

선시찰의 길을 이어갔는가 하는것을 리해하게 될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마음을 다잡곤 하였다고 자신의 진정을 터놓으시였었다.

정녕 총대강화의 길에 민족의 자주적존엄이 있고 인민의 생명이 있고 생활인 사회주의의 승리가 있기때 그 누가 내 마음 몰라줘도 몰라준대도 희망안고 이 길을 가고가리라 신념의 노래를 부르시며 군력강화의 길을 곳곳이 이어가신 위대한 장군님이시였다.

그 길에는 몸소 운전대를 잡으시고 1000여리에 달하는 전선시찰의 길을 헤쳐가신 가슴뜨거운 이야기도 있고 한몸의 위험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자그마한 패속정도로 풍랑사나운 파도를 헤쳐 초도방어대를 찾으신 눈물없이 들을수 없는 혁명일화도 있으며 밤깊도록 집무를 보신 피로도 푸실 사이없이 이른새벽 조선인민군 관문점대표부를 찾으시어 군인들에게 사회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반미대결전에서 자주적군위엄으로서의 사명과 임무를 다하리라는 크나큰 기대와 믿음을 안겨주신 뜻깊은 화폭도 수놓아져있다.

어찌 그뿐인가. 한발 잘못 디디면 천길벼랑 밑으로 굴러떨어질수

있는 오성산의 칼벼랑길로 야전차를 밀며 오르신 날도 있고 쏟아지는 폭우를 헤쳐가신 장마철 강행군길도 있으며 목숨을 아낀 승용차가 《눈부지》로 변하여 인민군군인들을 울린 잊지 못할 대소환의 강행군길도 있다.

참으로 위대한 장군님께서 조국과 인민을 위해 견고결연으로 군력강화의 길은 눈물겹고 희생적인 헌신의 자욱으로 수놓아져있다. 인공지구위성이 대지를 박차고 우주로 치솟아 민족의 긍지가 하늘에 닿고 주체병기들의 장쾌한 퇴성이 지구를 흔들며 주체조선의 무진막강한 힘이 만방에 파시되는 속에 주체철, 주체비날론, 주체비로가 쏟아지고 CNC공작기계가비로가 펼쳐졌으며 드넓은 전야들이 정리되어 사회주의땅답게 변모되였다.

하기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혁명영도사는 일찌기 있어본적이 없는 철저한 반제자주, 끝없는 애국헌신의 력사이며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에 대한 절대적 믿음과 친애의 사랑으로 수놓아진 숭고한 믿음을 밀고나가는 길밖에 다른 길은 없었다고 하시면서 고난의 행군 기간 자신께서는 수령님께서 그로록 사랑하신 인민, 수령님께서 믿고 기어오르시던 조국청사에 힘입어 승리하고 불멸의 업적을 수놓으신

는 각오, 우리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서는 그 무엇도 서슴지 않겠다는 사생결단의 의지를 안고 살았다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이 불멸의 애국헌신이 있어 공화국은 세기를 이어오는 반미대결전에서 련전련승의 기적을 이룩하였으며 모진 시련과 난관을 헤치고 사회주의강국건설의 튼튼한 토대를 마련할수 있었다.

인공지구위성이 대지를 박차고 우주로 치솟아 민족의 긍지가 하늘에 닿고 주체병기들의 장쾌한 퇴성이 지구를 흔들며 주체조선의 무진막강한 힘이 만방에 파시되는 속에 주체철, 주체비날론, 주체비로가 쏟아지고 CNC공작기계가비로가 펼쳐졌으며 드넓은 전야들이 정리되어 사회주의땅답게 변모되였다.

하기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혁명영도사는 일찌기 있어본적이 없는 철저한 반제자주, 끝없는 애국헌신의 력사이며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에 대한 절대적 믿음과 친애의 사랑으로 수놓아진 숭고한 믿음을 밀고나가는 길밖에 다른 길은 없었다고 하시면서 고난의 행군 기간 자신께서는 수령님께서 그로록 사랑하신 인민, 수령님께서 믿고 기어오르시던 조국청사에 힘입어 승리하고 불멸의 업적을 수놓으신

위대한 혁명실천이었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진정 자신의 온 심신을 강그리 바치시어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수호하시고 사회주의강국건설의 튼튼한 토대를 마련하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은 완전히 매혹되어 그이께 노래를 불러주시고싶었다.

이 노래와 더불어 만사람의 심금을 뜨겁게 울려주는 하나의 이야기가 전해지고있다.

지금으로부터 10여년전 12월 어느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위대한 장군님을 모시고 인민군대 전연지휘관들과 자리를 함께 하시였다.

절세의 위인들을 모신 크나큰 행복으로 가슴설레이던 전연지휘관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소탈하신 품모에 완전히 매혹되어 그이께 노래를 불러주시고싶다면 좋겠다고 외람된 청을 드렸다.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서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전연지휘관들이 나의 노래를 듣고싶다고 한결같이 요청하기 때문에 《내가 지켜선 조국》을 부르겠다고 우렁우렁하신 음성으로 말씀하시였다.

열렬적인 박수를 보내는 전연지휘관들을 자애로운 시선으로 바라보시면서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이 노래는 내가 어려서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다가 부르는 노래라고 하시였다. 그러시고는 노래를 부르시였다.

공화국인민들이 사랑하며 즐겨 부르는 노래들중에는 나사자란 고향과 사랑하는 조국을 지켜선 초병의 영예와 긍지를 한껏 구가한 노래 《내가 지켜선 조국》도 있다.

이 노래와 더불어 만사람의 심금을 뜨겁게 울려주는 하나의 이야기가 전해지고있다.

지금으로부터 10여년전 12월 어느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위대한 장군님을 모시고 인민군대 전연지휘관들과 자리를 함께 하시였다.

절세의 위인들을 모신 크나큰 행복으로 가슴설레이던 전연지휘관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소탈하신 품모에 완전히 매혹되어 그이께 노래를 불러주시고싶다면 좋겠다고 외람된 청을 드렸다.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서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전연지휘관들이 나의 노래를 듣고싶다고 한결같이 요청하기 때문에 《내가 지켜선 조국》을 부르겠다고 우렁우렁하신 음성으로 말씀하시였다.

열렬적인 박수를 보내는 전연지휘관들을 자애로운 시선으로 바라보시면서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이 노래는 내가 어려서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다가 부르는 노래라고 하시였다. 그러시고는 노래를 부르시였다.

금잔디 밟으며 첫걸음 떼고 애국가 들으며 꿈을 키운 곳 내 자란 조국이 하도 소중해 가슴에 총안고 전호에 썼네 아 정다운 나의 조국아 ...

노래의 구절 구절에는 어머니수령님께서 찾아주시고 위대한 장군님께서 빛내여주신 사랑하는 조국을 총애하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전철의 의지가 맥박치고있었다.

경애하는 그이의 가슴속에 소중히 자리잡은 조국, 그것은 어머니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물려주신 사회주의조국이고 사랑하는 인민이다.

그 조국을 언제나 가슴속에 소중히 간직하시였기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열화같은 조국애와 견인불발의 의지, 불면불휴의

헌신으로 공화국을 이 세상 그 누구도 건드릴수 없는 초강대국으로 일떠세워주시였다.

외세강력수록 가슴뜨겁다.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을 병진시키는데 력사적선언과 더불어 온 세계를 진감시킨 주체병기들의 장쾌한 퇴성, 강국건설의 계단들을 초고속으로 날아오른 력사적계기들인 《3.1혁명》, 《7.4혁명》, 7.28의 기적승리, 《11월대사변》,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포-17》 형식시험발사의 성공...

정녕 언제나 조국수호의 최전방에 서서 군력강화에 심신을 다 바치시어 이룩하신 경애하는 그이의 업적은 쌓으면 하늘에 닿고 펼쳐진 바다를 이를 위대한 업적이다.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여러 계기에 힘있게 선언하시였다. -우리 인민의 힘과 넋이 갖든 강위력한 최신헌기들로 장비한 혁명무력이 있기에 그 어떤 침략세력도 절대로 신성한 우리 조국을 넘볼수 없으며 조선인민의 앞길을 감히 막지 못한다.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강해야 한다. 우선 강해지고야야 한다.

-이제는 그 누구도 우리를 넘보지 못한다.

넘보지 못하게 할것이고 넘본다면 그 대가를 단단히 치르게 할것이다.

... 그렇다. 그 누구도 감히 넘보지 못하게 하는 공화국의 무진막강한 군력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애국의지와 헌신적인 노력의 고귀한 결정체이다.

경애하는 그이의 애국의지와 더불어 공화국의 국력은 앞으로 더욱 강해질것이다. 그이께서 지니신 열렬한 조국애, 조국수호의 의지를 깊이깊이 전철로 하여 《내가 지켜선 조국》은 온 나라 방방곡곡에서 높이 울려 퍼질것이다.

해와 별 빛나는 조국이 없인 고향도 가정도 나도 없으니 한없이 귀중한 그대를 지켜 내 한생 총잡고 초소에 살리 아 정다운 나의 조국아

전 일 남



너를 쓰지워키는 군민의 혈연의 정

불과 석달전,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회의에서 하달된 결정에 따라 하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특별명령을 받아 안고 악성병마와 싸우는 수도시민들을 찾아 거리와 마을들로 긴급히 전개되였던 조선인민군 군의부대 전투원들이 지난 14일 승리자의 자부심높이 귀에 울렸다.

경은과 안정을 되찾은 수도의 집집마다, 거리마다, 고요가 되었고 못별들만이 반짝이는 이른새벽 행장을 갖추고 인민들의 단장을 깨울새라 전투원들의 대오는 조용히 거리를 떠났다.

낮과 밤을 이은 긴장한 전투의 나날에는 그렇게도 강인했던 용사들이었던건만 친혈육과도 같은 인민들결을 떠나서 석별의 정을 금할수 없어 누구나 뜨거운 눈물로 두볼을 적시였다.

화선군인들이 떠나간다는 소식을 어느새 전해 듣고 자조도 훨씬 남은 이른새벽이지만 시민들이 저저마다 약과와 거리들에 떨쳐 나왔다.

방역대전의 순간순간 한몸이 그대로 섬세가 되고 방탄벽이 되어 인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준 군인들을 아쉬운 환송의 악수도 없이 너무도 조용히 떠나보내야만

하는 안타까움으로 시민들은 격정의 눈물을 쏟았다. 떠나서는 마음, 보내는 마음, 혈연의 정으로 오고가는 눈물겨운 화혼은 오직 이 나라에서만 볼수 있는 특유의 정경이었다.

주민들의 재산을 로략질하고 부녀자들을 겁탈하는것들은 배상사로 여기는, 그로 하여 인민들에게 불안과 민족의 대상으로 되고있는 군대들을 오늘날 행성의 그 어디에서나 볼수 있다.

얼마전에도 어느 한 나라의 인터넷에는 혼란을 평토로 금방 모를 낸 논란과 누렇게 익어가는 보리밭을 가리지 않고 대외와 장갑차로 마구 짓밟아버리고 향의한 굴이 오르겠고 있다. 지금 이 시각 남조선에서도 미국과 남조선의 방대해 무력이 도처에서 전쟁화약내를 풍기고 전쟁평화를 울려 남녘의 각계층 인민들을 극도의 불안과 공포속에 몰아넣고있다.

하나 이 땅은 어떠한가. 화선군인들이 떠나간 약국들과 그들의 발자취가 찍혀진 거리와 마을들의 집마다에 천만금을 주고도 살수 없는 혈연적인 사랑과 정이 고이 남아있다.

고열로 시달리는 로인의 머리맡을 지켜 꼬박 몇밤을

밝혀 끝내 소생시킨 이야기, 깊은 밤 위급한 입신부의 해산을 도와 조산원이 되였던 이야기, 영애군인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자기의 피를 넣어준 이야기...

경애하는 원수님의 뜨거운 사랑과 정이 인민들에게 더 빨리, 더 잘 닿도록 하기 위해 24시간 뜬눈으로 약국에서 전투를 벌려온 군의부대 전투원들, 쫓아도쫓아도 끝이 없는 군인들의 미담들은 그 어디에서나 후에도 인민들속에서 사랑과 정, 미담, 꿈울수 없는 군민대단결의 화폭으로 오래오래 전해질것이다.

어머니수령님께서 영도하신 항일대전의 나날에 시련을 둔 이 나라의 군민대단결, 그것은 방물까지 무장한 일제를 타승하는 신화를 낳았고 미국을 피수로 하는 제국주의연합세력을 쳐부러 친 위대한 전승을 안아왔으며 세기를 이어오는 반미대결전에서 련전련승을 이룩하는 기적을 창조하였다.

오늘날 절세위인의 영도밑에 인민과 군대의 똘똘한 힘은 반제반미대결전만이 아닌 비상방역대전에서도 패승을 안아왔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어 더욱 쓰지워키는 군민의 혈연의 정, 군민대단결의 힘이야말로 조국수호의 위대한 담보이며 사회주의강국건설의 힘있는 추동력이다.

본사기자 리경월

은 나라가 방역전쟁에서 위대한 승리를 쟁취한 격정과 환희로 세차게 끓어오르고있다. 전세계가 경탄의 목소리를 아끼지 않고있다.

악성비루스가 없는 청결지역! 참으로 세계보건의적 전무후무한 기적이 아닐수 없다. 이 놀라운 사실을 놓고 공화국인민들은 90여일간의 날과 날들을 가슴뜨겁게 되새겨본다.

뜻밖에 공화국경내에 악성비루스가 류입된것과 관련하여 지난 5월 12일 조성된 방역위기에 맞게 국가방역사업을 최대비상방역체제로 이행할데 대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결정서가 채택되였다.

사람들의 심장을 얼어붙게 한 그 순간으로부터 91일이라는 초긴장의 날과 날이 이 땅에 흘렀다.

과연 그때 그 누가 상상이나 할수 있었겠는가. 깨끗한 비루스청결지역에서 무병무탈하여 살게 될 날이 이렇게 빨리 오리라는것을.

말그대로 총포성없는 전쟁이었다. 보이지 않는 《적》과의 치열한 전쟁이었다.

그 나날에 이 나라 인민들은 위대한 수령의 현명한 영도따라 세인을 놀래우는 기적을 련이어 창조하였다. 돌이켜보면 세계적인 보건위기가 발생한 첫 시기부터 경애하는 원수님의 심중에는 비상방역사업이 단숨히 보건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사업이 아니라 인민의 생명과 국가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하나의 전쟁으로 자리잡고있었다.

하기에 그이께서는 국가방역사업을 국가사업의 제1순위로 내세우시고 국가의 총력을 발동하도록 하시였으며 방역사업에 대한 군사화된 지휘체제까지 세워주시였 아니겠는가.

력사를 거슬러 더듬어보면 인류가 발생하여 오일까지 지구상에는 수많은 생명을 무리로 앗아간 각종 전염병위기가 존재하였다. 20세기초

에 인류를 공포에 몰아넣었던 에스빠냐독감에 의해 수천만명이 목숨을 잃었던것도 그 하나의 실례이다.

그때마다 전염병위기를 국민의 생명안전을 지키기 위한 전쟁으로 대안 나라는 그 어디에도 없다.

오늘날 전 지구를 죽음에 몰아가는 악성비루스로 인한 전염병위기도 마찬가지이다.

지구상 곳곳에서 악성비루스에 의한 감염으로 불안과 절망에 몸부림치고 수많은

방역대전을 그 어떤 물질기술수단에 의해서만이나 아니라 전체 인민의 자각적인 치성과 전진함세로 진행되고 승리해나가도록 걸음걸음을 손잡아 이끌어주시였다.

공화국에서 최대비상방역체제를 가동한지 3개월도 안 되는 기간에 악성전염병에 의한 유역자들을 모두 완쾌시키고 치명률도 0.0016%로써 세계 그 어느 나라와도 대비할수 없이 낮은 기록을 세워 전염병위기대응관리에서 세계적인 기적을 창조

하였었다.

자신의 피와 살점과도 같은 인민들과 운명을 함께 할 결의를 굳히시며 자신의 목숨까지 내걸고 하실수 있는 모든것을 다 하신 자애로운 어머니의 진정성이.

정녕 뜨겁게 고통치는 그이의 심장속엔 다 있었다. 수천척 지하감방에서 조국을 만드는 부리가 되어 애국의 땀을 바쳐가는 미미한 탄력, 나라의 강철정신을 지켜낸 철의 기지의 용해공들, 부흥강국건설을 위해 드넓은

것들이었다. 전철의 피와 살점과도 같은 인민들과 운명을 함께 할 결의를 굳히시며 자신의 목숨까지 내걸고 하실수 있는 모든것을 다 하신 자애로운 어머니의 진정성이.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뜻깊은 언설에서 나에게서 목숨을 내걸고라도 무조건 지켜야 할 인민이 있었다. 기쁨 때도, 어려움 때도 언제나 나를 다잡아주고 항상 떠밀어 일으켜세워주는 《인

민》이라는 존재는 나에게 있어서 단 한명도 철대로 잃을수 없는, 잃어서는 안될 피와 살점과도 같았다. 하릴 때 정말이치 복받쳐오르는 걱정을 누를길 없었습니다.

그이의 심중에 나와 우리 가정, 온 나라 인민의 모습이나 얼마나 깊이 자리잡고있는가를 다시금 절감하였습니다. 《정말 송구스러움을 금할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처럼 무탈하게 가정의 평화를 되찾고 행복을 누릴수 있는것이 과연 어느분의 덕이란 말입니까.

경애하는 원수님의 희생적인 헌신을 떠나 어떻게 오늘날의 우리들에 대해 생각할수 있던 말입니까. 그런데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늘 우리 인민들에게 먼저 고맙다고 쓰거운 인사를 보내주시니 진정 고마움의 인사를 받으셔야 할분은 우리의 어머니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입니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이것이 감상에 넘치는 이 나라의 민심의 메아리이다.

그렇다. 공화국이 맞이한 오늘날의 승리는 인민을 하늘처럼 떠받치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열화의 정과 헌신이란 안아온 이 세상 가장 값비싼 승리이며 경애하는 그이만 계시면 무서울것도 두려울것도 없다는 이 나라 인민의 신념이 낳은 가장 긍지높고 자랑스러운 승리이다.

이제는 영도자와 인민사이의 혈연적인 정과 신뢰와 믿음을 불가항력으로 지니고있는 공화국만이 이룩할수 있는 세계보건의사에 투쟁하는 기적승리이며 영웅조선의 또 하나의 위대한 승리이다.

위대한 운명의 수호자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을 어머니로 높이 모시어 이 땅의 천만민민이 리치는 고마움의 인사를 영원한 충정의 메아리로 후세도록 울려 퍼질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 고맙습니다!

본사기자 유금주



《교맽 습니다!》

은 인명피해를 내고있지만 공화국에서와 같이 이를 막기 위한 군사화된 지휘체제를 세운 나라는 없었다.

오직 인민의 생명안전을 첫 자리에 놓으시고 그를 위해 자신의 모든 심혈을 다 바쳐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만이 취해주시실수 있는 강력 한 방역조치였다.

정녕 잊을수 없다. 건국 이래의 대동란이라고 할수 있는 방역위기에 당황하여 누구도 갈라줄 수 없었던 그대 중요회의들을 련이어 소집하시고 국가방역사업을 최대비상방역체제로 이행시켜주시신 경애하는 원수님.

모소 국가비상방역사령부를 찾아주시고 짧은 기간에 전염병전과 상황을 안정적으로 억제, 관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향과 방도를 제시 해주셨으며 위기사태의 첫 시기부터 주도성, 력동성을 확고히 견지해나갈수 있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신 경애하는 그이이다.

어찌 이뿐이랴. 그이께서는 당중앙군사위원회 특별명령을 내리시어 수도비상방역의 제1선에 인민군대 군의부대 전투원들을 파견해주시는 조치도 취해주시였으며

그 하나하나의 수자에는 어려웠었다. 영도자의 안념만을 바라고 바라며 언제 어디서나 중심으로 따르고 만드는 눈높이로써 인민들의 모습을 지켜보시며 심신을 강그리 불태우셨을 경애하는 그이의 거룩하신 존안이.

그 하나하나의 수자에 다

본사기자 유금주

허망한 꿈을 꾸지 말라

김여정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담화

할 말이 그렇게도 없었거나 또 하나 마나한 헛소리를 했을바에는 차라리 입을 웅다물고있는편이 체면을 유지하는데 더 리로웠을 것이다.

윤석열의 《8.15경축사》를 두고 하는 말이다.

민심도 떠나가는 판국에 윤석열이 애당초 그런 자리에 나서지 않았다면 오히려 더 나았을 듯싶다.

내가 윤석열을 격정해서 이 말을 해 주는 것이 아님에 삼척동자도 다 알고 이고 하도 남쪽동네에서 우리의 반응을 목베려고 궁궐해하기에 오늘 몇마디 해주는 것이다.

만약 연단에 정 나서고 싶었다면 도대체 얼마만큼이나 품되어 머리를 굴렸기에 그렇게도 체면 하나 제대로 쟁길 말을 고르기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이번에 윤석열은 운동 《공산세력파 맞서 자유국가 건설 과정》, 《공산침략에 맞서 자유세계를 지키기 위한》 것따위의 궤변과 체제대결을 고취하는데만 몰입하였다.

입에 담기 참으로 미안하다만 역시 개는 염지든 새끼든 짖어대기가 일쑤라더니 명색이 《대통령》이란 것도 다

플라 없다.

가장 역스러운것은 우리더러 격에 맞지도 않고 주제넘게 핵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그 무슨 경제와 민생을 획기적으로 개선할수 있는 《과감하고 포괄적인(담대한 구상)》을 제안한다는 황당무계한 말을 줄줄 읽어낸 것이다.

한때 그 무슨 《...운전자》를 자처하며 못사람들에게 의아를 선사하던 사람이 사라져버리니 이제는 그에 절대 짝지지는 않는 제멋에 사는 사람이 또 하나 나타나 권좌에 올라앉았다.

이미 지난 5월 《취임사》에서 북남 관계를 개선할 그 무슨 구상이라도 품고있는 듯 내새를 피운데 이어 미국과 주변국들에 설명해가며 리해와 지지를 청탁해대는 등 나름대로 술한 품을 들인것같은데 이번에 내놓은 《구상》이라는 것이 참 허망하기 그지없다.

그래도 소위 《대통령》이라는 자가 나서서 한다는 마디마디의 그 엉망같은 말들을 듣고 앉아있자니 참으로 그쪽 동네 세상이 신기해보일 따름이다.

정녕 《대통령》으로 당선시킬 인물

이 지 운아무개밖에 없었는가?

《담대한 구상》? 그러면 내가 그 허망성을 한마디로 대답해주겠다.

윤석열의 《담대한 구상》이라는 것은 점무는 대양을 말리워 뽕밭을 만들어보겠다는 것만큼이나 실현과 동떨어진 어리석음의 극치이다.

상대가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또 북남관계를 아는 사람들이 어떻게 평할런지도 전혀 개의치 않았으니 그나름대로의 《용감성》과 넘치게 보여준 무식함에 의아해짐을 금할수 없다.

몇마디 충고하고자 한다.

《담대한 구상》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10여년전 리명박역도가 내들었다가 세인의 주목을 끈 동족대결의 산물로 버림받은 《비핵, 개방, 3000》의 복사판에 불과하다.

력사의 오물통에 처박힌 대북정책을 옮겨써놓는 것도 가관이지만 거기에 제식대로 《담대하다》는 표현까지 붙여놓는 것을 보면 진짜 바보스럽기 짝이 없다.

우선 《북이 비핵화조치를 취한다면》이라는 가정부러가 잘못된 전제

이라는 것을 알기나 하는지 모르겠다.

력대 선입자들은 물론 하내비처럼 섬기는 미국까지 어찌지 못한 《북핵 포기》의 헛된 망상을 멋모르고 줄 줄 읽어가는 것을 보자니 참으로 안됐다 하는 안스러움, 분명 결에서 잘못 써준 글이었는 데 아직은 뭐가 된지도 모르고 냐다 읽어버렸다는 불쌍한 생각이 든다.

세상에는 흥정할 것이 따로 있는 법, 우리의 국제인 핵을 《경제협력》과 같은 물건짝과 바꾸어보겠다는 발상이 윤석열의 푸르청정한 꿈이고 희망이고 구상이라고 생각하니 정말 친진스럽고 아직은 어리기는 어리구나 하는 것을 느꼈다.

권좌에 올랐으면 2~3년은 열심히 일해야야 그제서야 세상돌아가는 리치, 사정을 읽게 되는 법이다.

어느 누가 자기 운명을 강낭떡마위와 바꾸자고 하였는가.

아직 판돈을 더 대면 우리의 핵을 어찌 불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부질없는 망상에 사로잡혀있는 자들에게 보내줄 것은 쓰거운 경멸뿐이다.

북남문제를 꺼내두고 집적거리지 말고 시간이 있으면 제 집안이나 돌보

고 걱정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가족이나 경제와 민생이 엉망진창이어서 어느 시각에 쫓겨날지도 모를 불안속에 살았는데 언제 그 누구의 《경제》와 《민생》개선을 운운할 겨를이 있었는가.

우리 경제에 아직도 더러운 오물들을 계속 들여보내며 우리의 안전환경을 엄중히 침해하는 악한들이 북조선들에 대한 《식량공급》과 《의료지원》 따위를 꿰쳐대는 것이야말로 우리 인민의 격렬한 증오와 분격을 더욱 무섭게 폭발시킬 뿐이다.

오늘은 《담대한 구상》을 운운하고 매일은 북침전쟁연습을 강행하는 파렴치한이가 다름아닌 윤석열 그 《위인》이다.

제발 좀 서로 의식하지 말며 살았으면 하는 것이 간절한 소원이다.

남조선당국의 《대북정책》을 명하기에 앞서 우리는 윤석열 그 인간자체에 대한 《시각공급》과 《의료지원》 따위를 꿰쳐대는 것이야말로 우리 인민의 격렬한 증오와 분격을 더욱 무섭게 폭발시킬 뿐이다.

오늘은 《담대한 구상》을 운운하고 매일은 북침전쟁연습을 강행하는 파렴치한이가 다름아닌 윤석열 그 《위인》이다.

제발 좀 서로 의식하지 말며 살았으면 하는 것이 간절한 소원이다.

남조선당국의 《대북정책》을 명하기에 앞서 우리는 윤석열 그 인간자체에 대한 《시각공급》과 《의료지원》 따위를 꿰쳐대는 것이야말로 우리 인민의 격렬한 증오와 분격을 더욱 무섭게 폭발시킬 뿐이다.

오늘은 《담대한 구상》을 운운하고 매일은 북침전쟁연습을 강행하는 파렴치한이가 다름아닌 윤석열 그 《위인》이다.

제발 좀 서로 의식하지 말며 살았으면 하는 것이 간절한 소원이다.

남조선당국의 《대북정책》을 명하기에 앞서 우리는 윤석열 그 인간자체에 대한 《시각공급》과 《의료지원》 따위를 꿰쳐대는 것이야말로 우리 인민의 격렬한 증오와 분격을 더욱 무섭게 폭발시킬 뿐이다.

윤석열은 자기 패당들이 때없이 나서서 무식하게 내뱉는 대결적망발들이 어떤 큰 위협을 키우게 되겠는가를 깊이 걱정해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부언하건대 우리와 일체 상대하지 않는 것이 상책이라고 한 우리의 권언을 순간도 잊어서는 안된다.

끝으로 한마디 더, 참으로 안됐지만 하루천 진행된 우리의 무기시험발사지점은 남조선당국이 서투르고 입 빠르게 발표한 온천일대가 아니라 평안남도 안주시의 《금성다리》였음을 밝힌다.

늘쌍 《한》미사이의 긴밀한 공조하에 추격감시와 확고한 대비태세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외우던 사람들이 어찌서 발사시간과 지점 하나 제대로 밝히지 못하는지, 무기체계의 제원은 왜서 공개하지 못하는지 참으로 궁궁해진다.

제원과 비행자리길이 알려지면 남쪽이 매우 당황스럽고 겁스럽겠는데 이제 저들 국민들앞에 어떻게 변명해나갈지 정말 기대할만한 볼거리가 될 것 이다.

주체111(2022)년 8월 18일

평 양

조국통일상과 더불어 빛나는 애국애족의 삶

인생을 값있게 살려는 것은 인간의 소원이요 지향이다.

하다면 장장 70여년간이나 민족분열의 고통을 겪고있는 우리 민족성원들에게 있어서 어떤 삶이 가장 값있고 보람있는 삶으로 되는 것인가.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을 우리는 조국통일상과 더불어 겨레의 마음속에 새겨진 통일 애국인사들의 삶에서 찾으



려고 한다.

조국통일상과 더불어 빛나는 삶.

그것은 참다운 인생의 가치와 보람은 자신의 운명을 민족의 운명과 결사하고 조국의 통일독립과 민족의 통일번영을 위한 성스러운 위업에 몸과 마음을 바치는데 있다는 진리를 다시금 새겨주고 있다.

이것이 새겨진 조국통일상과 더불어 민족사에 길이 새겨지게 되었으니 어찌 사람들의 심장이 격정하고 흥분으로 뿔뿔이 뚫어지지 않았겠는가.

조국통일상의 제정.

여기에는 통일애국의 길을 뜻깊이 걸은 려사들의 삶을 그 무엇보다 귀중히 여기고 그들의 투쟁공로와 애국정신을 언제나 빛내어주시려는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애국애족의 숭고한 뜻이 깃들어 있다.

주체79(1990)년 봄.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통일전선부문의 책임일군에게 조국해방 45돐에 즈음하여 조국통일상을 제정하고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특출한 공로를 세운 북과 남, 해외동포들을 표창하여야 하겠다고 뜨겁게 교시하시었다.

민족이 있고서야 사상과 제도도 있다. 민족공동의 위업인 조국통일을 위해 헌신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가 존재하고 있다고 해도 그것을 초월하여 민족의 이름으로 응당 평가하고 내세워주어야 한다.

바로 이것이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뜻이었던 것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조국통일상이 전민족을 대상으로 하여 성스럽고도 어려운 조국통일위업에 공헌한 사람들에게 수여되는 것만큼 무게가 있으면서도 의의있게 제정하도록 해주셨다.

창작가들이 만들어올린 조국통일상메달과 상장건본을 친히 보여주시며 조국통일상메달은 다른 메달과 달리 금

조국통일을 위해 바쳐진 삶에 대한 값높은 평가

1990년 8월 15일.

그날은 조국해방 45돐이 되는 뜻깊은 날이었다.

누구나 마흔다섯번째로 맞게 되는 조국해방의 날을 맞으며 기쁨과 환희로 설레고 있던 그때 평양에서 울려 퍼진 한련의 보도가 사람들의 가슴을 새차게 울려주었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인민위원회는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기치를 높이 들고 북과 남, 해외에서 민족의 자주권과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성스러운 위업에 크게 공헌한 다음은 애국인사들에게 조국해방 45돐에 즈음하여 《조국통일상》을 수여한다. ...》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존엄으로 발표된 조국통일상 수여에 관한 역사적인 결정이 온 겨레에게 안겨준 환희와 격정은 참으로 컸다.

어찌 그렇지 않을 수 있겠는가.

나라가 분열되어 장구한 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민족의 단합과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 귀중한 생을 바쳐왔던가.

그들 가운데는 위대한 청춘을 조국통일을 위한 길에 바친 열혈의 투사들도 있고 사형장에 끌려가면서도 《조국통일 만세!》를 소리높이 웨친 애국인사들도 있었다. 또한 몸은 비록 해외에서 살아가도 조선사람이라는 긍지와 자부심을 잃지 않고 조국의 부강발전과 통일을 위한 사업에 몰입투신한 지원을 아끼지 않은 해외동포들도 있었다.

으로 할데 대한 가르치심도 주시고 상장내용도 통일가 뚜렷이 새겨지도록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세심한 손길에 떠맡겨 조국통일상은 비로소 세상에 태어나게 되었던 것이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직접적인 지도밑에 완성된 조국통일상메달과 상장을 보여주시고 매우 기뻐하시며 조국통일상제정은 온 세상에 선포하시고 조국해방 45돐을 계기로 첫 수상자들을 발표하도록 하시었다.

《세상에는 조국통일상과

같이 사상과 제도보다 민족지상의 과업인 조국통일을 최고의 애국으로 내세우고 계급과 계층, 주의주장을 초월하여 조국통일을 위해 공헌한 사람이라면 그가 누구이든, 북과 남, 해외의 그 어디에 살든 관계없이 수여되는 상은 없습니까.》

이것이 첫 조국통일상수상자들이 발표되던 날 어느 한 해외동포가 터진 격정의 웨침이다.

이것이 어찌 그만의 심정이 아니고 하라. 통일의 길에 바친 려사들의 투쟁공로와 애국정신을 값높이 내세워주고 빛내어주시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을 우러러 탄복과 남, 해외의 온 겨레의 한결같은 마음이기도 하였다.

이렇듯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에 의하여 세상에 태어난 조국통일상은 분열된 우리 조국에서 참된 애국은 어떤 것인가를 말하여주는 최대의 애국증표였다.

겨레를 통일성전으로 부르는 조국통일상

조국통일상은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민족의 간고하고도 시련에 찬 투쟁의 축도이고 그 길에서 빛나는 통일에 국인사들의 값높은 삶의 총화이기도 하다.

첫 조국통일상수상자들의 삶이 그러하였다.

항일혁명투사 김책동지와 남조선의 전 민주독립당 당수였던 홍명희선생, 어제날 반공의 앞장에 섰던 민족자주전맹위원장 김구식선생, 평양을 방문하고 육교를 치르고있던 남조선의 문학관목사... 북과 남의 인사들만이 아니었다.

미국에서 《한겨레운동원합》 상임고문으로 활동하

가르쳐준 통일성전으로 부르는 조국통일상

고있던 립창영선생과 조국통일북아메리카협회 중앙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 사업하고 있던 선우학원선생을 비롯한 해외인사들...

한사람한사람 이름을 꼽아볼수록 생각도 깊어진다.

그러나라면 량반가문의 후손으로서 일찌기 일제를 반대하는 여러 투쟁들에 참여하였으나 끝내 뜻을 이루지 못하고 방황하다가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품에 안겨 공화국의 첫 부수상으로, 조국과 민족이 기억하는 애국인사로 값높은 삶을 누린 홍명희선생의 과민민장한 한성이 떠오르고 잘못 살아온 과거와 결별하고 위대한 수령님의 품에서 인생

의 새 출발을 시작하였으며 생의 마지막시기까지 통일성전의 길에 모든것을 다 바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 통일신보사 명예사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천도교청우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조선천도교회 중앙지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일하였던 최덕신선생의 한생도 눈앞에 어려온다. 대결과 분열의 장벽을 박차고 통일을 위해 사신을 넘었던 문익환목사, 손에 쇠고랑을 차고서도 통일을 웨치며 온그의 당찬 모습에 마음속을 더욱 파고들며 간직된다.

생의 마지막까지 민족의 정통무도인 태권도를 가지고 민족의 단합과 조국통일을 위하여 헌신한 최홍희선생,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품에서 조국을 위한 음악창조의 길을 찾은 생의 말년까지 민족의 통일성업을 이룩하기 위하여 애국의 한길을 뜻깊이 걸은 윤이산선생의 곡절많은 운명의 길도 돌이켜보게 된다.

그들만이 아니었다. 통일을 목청껏 웨치며 항쟁의 마당에서 애국의 피를 흘린 조성만, 리동수, 리한철, 남태현, 리철규 등 수많은 통일애국렬사들의 삶도 보인다.

진정 그들은 모두 조국통일에 자기를 아낌없이 바친 투사들이었고 려사들이었다. 바로 조국은 이들의 삶을 잊지 않고 조국통일상이라는 값높은 칭호와 더불어 빛내여주었다.

조국통일상이 제정된 때로부터 많은 세월이 흘렀다. 이 값높은 세월과 더불어 조국통일운동은 전민족적인 운동으로 확대발전되고 조국통일상수상자들의 대오도 나날이 늘어났다.

통일조국의 부강번영에 조급이라도 이바지하려는 일념으로 불태운 김만유, 안상택, 박두선 등 해외에 사는 애국적사공인들도 조국통일상을 수여받았다. 또한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 나섰다가 수십년세월 감옥에서 갖은 고초를 겪으면서도 신념과 의지를 굽히지 않은 63명 비전향장기수들도 모두가 한날한시에 조국통일상을 수여받

은 감격적인 화폭도 펼쳐졌다. 수십년전 굴종과 파쇼의 어두운 남조선사회를 박차고 공화국의 품에 안겨 조국통일의 한길에서 값있는 생을 살면서 교수, 박사도 된 정규진선생도 영예의 조국통일상수상자가 되었다.

2012년 9월 7일 평양에 자리잡고있는 세계평화센터에서는 해내의 온 겨레의 가슴을 울리는 뜻깊은 광경이 펼쳐졌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세계평화연합 총재 문선명선생이 병으로 사망하였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못내 가슴아파하시며 평양에서 그를 추모하는 행사를 크게 하도록 조치를 취해주시였을뿐 아니라 민족의 화해와 단합, 나라의 통일을 위해 기술인 그의 노력을 잊지 않고시고 친히 유가족들에게 조전과 위로의 말씀과 함께 화환을 보내주셨 것이다.

이날 만수대의사당에서는 문선명선생에게 조국통일상을 수여하는 의식도 진행되었는데 이를 목격하는 사람들도 이 소식을 전해들은 사람들도 모두가 심장마다에 다시금 새겨안은 진리가 있었다.

그것은 민족과 통일을 위해 바친 삶은 과거의 경력이 어땠든, 어디서 무엇을 했든 모두가 조국과 민족의 기억속에 영원히 살아있게 된다는 그것이었다.

조국통일상을 영예롭게 수여받은 사람들의 대오는 날을 따라 더욱 늘어나고있다. 그만큼 조국통일의 추계적력량은 날을 따라 확대강화되고 거추적인 통일대진군도 다그쳐지고있다.

오늘도 조국통일상과 더불어 겨레의 마음속에 새겨진 수많은 통일애국인사들. 그들은 모두 민족의 장한 아들딸들로서 후대들에게 호소하고있다.

8천만겨레!

누구나 조선사람의 본분을 자각하고 조국통일과 민족의 밝은 미래를 위해 순결한 애국의 마음과 노력을 바쳐가자. 민족이 기억하는 참된 통일애국투사가 되라.

본사기자 리연선

한편 《COVID-19》의 확산으로 인하여 2020년 12월을 마지막으로 중단되었던 《화요행동》은 올해 6월 14일에 재개되고 같은 날 130번째를 맞이하였다.

135번째가 된 이번 《화요행동》 참가자들은 18시부터 약 1시간동안 조선학교에 대한 무상화적용을 요구하며 호소 가부조교에 다니던 시절 《화요행동》에 참가한 경험을 되살리며 《우리 학교를 다니고 지금의 내가 있다. 나를 키워준 훌륭한 배움터가 인정되지 않는 현실앞에서 주저없이 않고 계속 목소리를 울려 나갈 것이다.》고 결심을 피력하였다.

조선대학교 리공학부 김리사학성(2학년)은 여름방학기간 사회실천활동의 일환으로 《화요행동》에 참가하였다고 한다.

그는 《내가 조교를 졸업한 후에도 부당한 차별행위는 계속되고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야 이 활동의 영향력도 커질 것이다.》고 하면서 민족교육권을 지켜 운동을 대중적으로 벌려나가야 할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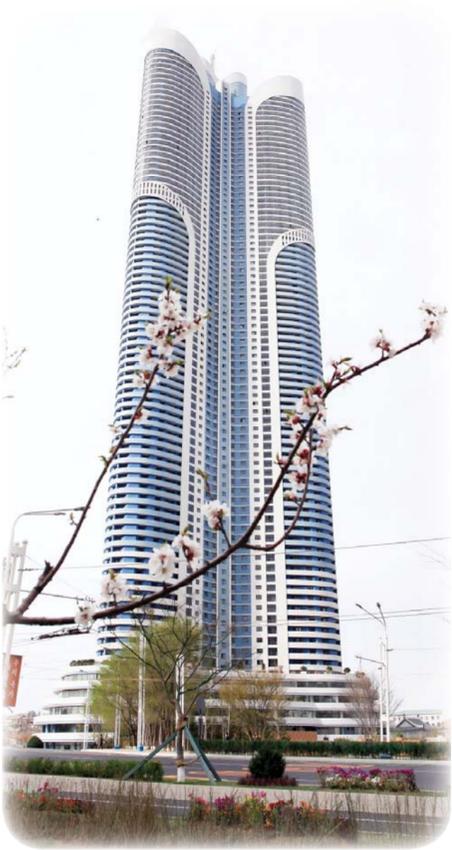
본사기자

조선학교에 대한 무상화적용을 요구하며 호소 가부조교에 다니던 시절 《화요행동》에 참가한 경험을 되살리며 《우리 학교를 다니고 지금의 내가 있다. 나를 키워준 훌륭한 배움터가 인정되지 않는 현실앞에서 주저없이 않고 계속 목소리를 울려 나갈 것이다.》고 결심을 피력하였다.



수필

하늘에 오른 두 운명



사람들은 나를 보고 《하늘공중에서 사는 사람》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말하면 아마 내가 비행사이거나 공중교예를 하는 배우인가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비행사도 아니고 공중교예배우도 아니다. 이 나라의 평범한 노동자일 따름이다.

내가 사는 곳은 지상에서 아득히 높은 75층에 위치하고 있는 고급살림집이다.

국가에서 인민을 위해 1만 세대의 살림집들이 들어찬 송화거리를 일떠세워주면서 평범한 노동자인 내게도 돈 한푼 안받고 이 거리에서 제일 높은 80층이상의 75층 5호집 입사증과 열쇠를 안겨준 것이다.

하루일을 마치고 돌아와 초고속승강기에 몸을 실으면 우주비행선에 오른듯 잠간사이에 내가 사는 75층에 이르게 된다.

현재적으로 꾸러진 살림집 내부도 마음을 흠뻑하게 하지만 그보다 더 마음을 흥그럽게 하는 것은 베란다에 나서서 평양시의 전경을 부감하는 때이다.

한쪽의 그림처럼 아름다운 새 거리가 한눈에 안겨오고 저 멀리 창천거리와 미래과학자거리, 려명거리까지 보이는 정경은 그야말로 이례없는 장관이다.

하늘을 떠다니는 몽계구름도 이 손을 뻗으면 금방 닿을 듯하다.

구름이 내 머리를 나는가, 아니면 내가 구름을 나는가. 그야말로 하늘의 높이에 오른 나의 삶이다.

하기에 이 행성의 모든것을

논아래로 굽어보며 나는 공화국의 공민이 된 무한한 긍지와 행복감을 겨워 산다.

나쁜이 아니다. 어느 한 식료공장에서 일하는 열정의 노동자부부도 그리고 우리 집아래에 사는 김정숙평양방직공장의 노동자부부도 나처럼 아침저녁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질 줄 모른다.

세상에 노동자들이 많지만 우리 노동자들처럼 국가의 다심한 온정과 배려속에 하늘높이 떠날들리우며 궁지높고 행복한 삶을 누리는 노동자들이 또 있었는가.

내가 사는 75층, 그것은 단순한 살림집층수가 아니라 나나 우리 노동자들이 고마운 우리 사회에서 받는 대접이고 행복의 높이라고 본다.

기쁨과 행복속에 하루하루를 보낼수록 언제인가 출판물에서 보았던 남조선노동자들의 비참한 삶에 대한 기사가 생각나곤 한다.

바라보기만 해도 아찔한 75m높이 공장굴뚝의 맨 꼭대기에 올라서 그리고 높이가 85m나 되는 탑식기중기의 팔에 올라서 생존권을 요구하며 처절한 고공투쟁을 벌이는 노동자들.

그들이 몸을 담은 그 높은 곳이 과연 어떤 곳인가.

아차하는 순간에 발을 헛디디면 순식간에 땅바닥에 떨어질 수 있고 세찬 바람과 눈비에 몸을 가리울데도 없는 곳이다. 전기와 물을 비롯하여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조건도 갖추어지지 않고 허리를 펴고 누울수도 없게 한평도 되나마나한 비좁은 공간이다.

이런 위험하고 극악한 환경

에서 목숨을 내대고 열흘, 지어 1년도 더 넘는 408일간의 고공투쟁기록을 세운 노동자도 있다고 하니 얼마나 기막힌 일인가.

고공투쟁은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서 하는 극한의 투쟁수단이다. 그럼에도 수많은 노동자들이 고공투쟁에 나서서 리유에 대해 남조선의 한 언론은 《억울함을 풀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다시말하여 기업측과 당국이 노동자들의 초보적인 생존권요구마저 어기지 않아 결국 수많은 노동자들이 극단한 방법을 택해 기중기와 철탑, 굴뚝, 광고탑 등에서 아찔한 고공투쟁을 벌리고있다고 썼다.

... 조합원들은 담배만 피워댔다

속이 타들어 가 기중기위에 서도 울고

하늘에서도 울고 땅에서도 우는

이 땅의 서러운 노동자들 ...

땅에서 절규하다 못해 하늘에 올라 모진 세상을 원망하는 노동자들의 기막힌 삶에 대해 남조선의 한 시인이 쓴 시의 한 구절이다.

얼마나 그 삶이 서러웠으면 땅에서도 울고 하늘에서도 운다고 했으랴.

나도 하늘에서 살고 남쪽의 그 노동자들도 하늘에서 살지만 편이한 삶의 처지는 하늘과 땅처럼 아득히 차이난다.

인간존엄과 행복의 상상봉에 올라 기쁨과 광만의 웃음 짓는 우리 노동자들과 아찔한 고공에서 《노동자의 삶은 지옥이다》라는 프랑카드를 내걸고 울면서 안타까이

처우개선을 요구하는 남조선 노동자들.

다같은 노동자이지만 두 운명이 이렇게 차이나는 것은 몸담고 사는 제도가 다르고 정치가 다르기 때문이리라.

공화국이 근로하는 인민을 하늘로 내세우고 모든것을 인민에게 안겨주는 고마운 천국이라면 남조선은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하는 사람들이 사회의 최하층에 속해 생의 막바지에서 허덕이지 않으면 안되는 생지옥이다.

고마운 우리 제도에서 오늘도 노동자들을 기다리는 것은 더 높은 행복의 단상이지만 1%의 가진자들이 주인이 된 자본주의사회에서 노동자들을 기다리는 것은 길이를 알수 없는 인생의 천길나뉘러지 인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노동자들인가.

나는 깊은 상념에 잠겨 문을 열고 베란다에 나섰다.

열집 세대주가 딸과 함께 밤하늘에 빛나는 별들을 향해 손짓하는 모습이 보여오고 아래층의 신혼부부가 잔잔한 목소리로 행복의 무아경속에 잠겨 부르는 《세상에 부럽없어라》의 노래소리가 귀전에 들려왔다.

밤하늘을 장식한 못별들보다 이 거리를 수놓은 행복의 별천지가 더욱 아름답게 빛을 뿌리며 잠들지 못하는 송화거리.

그 별천지속에 나도 하나의 별이 되어 삶을 빛내인다고 생각하니 마음은 밤하늘을 훨훨 날고싶었다.

평양시 사동구역 송신1동 22인민반 75층 5호 리 명 일



꿈의 궁전에 서



◆ 문수물놀이장 ◆

삼복이 지나갔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더위는 수그러들 줄 모르고있다.

대동강반에 자리잡은 문수물놀이장은 무더위로 달아오른 몸을 식히려 오는 수많은 사람들로 하여 인파를 이루고있다.

야외물놀이장의 갖가지 형태의 미끄럼대에서 와와 탄성을 울리며 미끄러져 내려 물과 유패히 포용하기도 하고 쏟아지는 물줄기에 몸을 맡기고 덕수를 맞는 사람들, 바다물이 출렁이는 수조에서 헤엄치는 사람들... 배구장에서는 젊은 축들이 배구경기로 땀을 쪽 빼고있는데 그들도 경기가 끝나기 바쁘게 물속에 뛰어 들 것이다.

한껏 달아오른 땀을 식힐 때 느끼는 그 쾌감은 이루 다 헤아릴수 없다.

그런가 하면 여러층으로 된 조약대에서는 물에 뛰어드는 사람들의 모양이 가관인것으로 해서 더욱 흥성이고있다.

실내수영장도 다름바없다. 좌우로 흔들리며 이따금 물을 쏟아붓곤 하는 커다란 바께뜨며 개구리, 꼬끼리모양의 물미끄럼대들, 버섯모양의 분수, 주둥이로 물을 쏘는 악어, 그네, 널뛰기 등 다채

로운 물놀이시설들에서 아이들은 천명천명 물장구치느라 시간가는줄 모른다.

무더위로 달구지 못하는 물의 궁전-문수물놀이장은 어른이 할것없이 마음껏 물놀이하며 즐기는 사람들의 기쁨에 넘친 웃음소리로 해서 웃음궁전으로 화한듯하다.

본사기자 김 철

함께 웃고웃으며 사는 화목한 가정 친혈육의 정으로 안아온 기적

공화국의 함흥시 사동구역에는 몇해전 하반신마비로 걷지 못하는 처녀를 등에 업고 다니며 치료해준 아름다운 소행을 발휘한 강진혁, 주유별 부부가 살고있다.

그런데 이들부부가 뜻밖의 일로 두다리를 쓰지 못하는 평양시 모란봉구역 성복동에서 살고있는 강별이녀성의 병치료를 위해 친혈육의 정을 기울여 뚜렷한 효과를 보게 하였다는 소식이 또다시 전해져 사람들의 감동을 자아내고있다.

... 우연한 기회에 강별이녀성의 병상태에 대해 알게 된 강진혁, 주유별부부의 생각은 깊었다.

33살의 한창나이에 불구의 몸이 되었다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쓰릴까. 한번도 만나본적은 없었지만 그가 자기들의 친혈육으로, 정다운 이웃처럼 느껴졌다.

그들은 평양에서 살고있는 강별이녀성과 전화를 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병치료에서는 워니워니해도 신심이 중요합니까. 어서 함흥으로 오세요. 우리가 힘차라는것 들었어.》

그로부터 며칠후 강별이녀성이 함흥에 도착하였다. 혈육도 없고 처음 가보는 생소 한 곳이어서 걱정도 없지 않았지만 그것은 공평한 생각이였다.

함흥역에서 네바퀴차에 몸을 싣고 주위를 둘러보는 그에게 낯모름 사람들이 다가왔다. 주유별과 그의 남편이였다.

불편한 몸으로 먼길을 오느라 수고가 많았겠다고. 이렇게 믿고 찾아와주어 고맙다고 하는 그들의 말에 그는 왈카 눈물을 쏟았다.

(도대체 누가 누구에게 고맙단 말인가.)

강별이녀성은 이런 생각으로 자기가 어떻게 함흥리상의 학원수소 미세외과연구실까지 왔는지 미처 알수 없었다.

량형민실장을 비롯한 의료일군들이 그를 반갑게 맞아 주었다. 그들이 하는 말도 방금전 주유별과 그의 남편이 하는 말과 꼭같았다.

곧 구체적인 조직사업이 따라섰고 이어 치료가 진행되였다.

함흥시의 의료일군들이 평양의 한 녀성을 위해 뜨거운 정성을 바쳐가고있을 때 주유별의 가정에서는 강별이녀성의 입원생활에 필요한 생활용품들을 마련하느라 시간가는 줄 몰랐다.

이들부부의 발걸음은 매일 강별이녀성의 침상곁으로 이어졌다. 이미전에 불구인 한 처녀를 업고다니며 치료를 시킨 경험이 있는 그들은 의료일군들을 도와 자체로 수습종의 약초도 구해왔고 밤을 지새우며 수범치료도 해주었다.

그뿐이 아니였다.

그들은 강별이녀성이 사소한 걱정도 없이 치료에 전심하도록 하기 위해 가족들의 생활에도 깊은 관심을 돌리고 물심장면의 지성을 바치였다.

의료일군들의 진정은 또 얼마나 뜨거웠던가. 그의 치료를 위해 가정에 보관하고있던 귀한 약재까지 아낌없이 바친 량형민실장이며 밤새워 만든 닭곰을 가지고나와 안겨준 조호장...

이런 정성속에서 마침내 강별이녀성의 다리에서 신경이 살아나게 되였다.

그것은 기적이였다. 소문없이 일어난 한 인간의 소생의 기적이였다.

그러나 의료일군들도, 강진혁, 주유별부부도 자기들이 한 일을 자랑거리로 여기지 않았다. 그저 기쁘기만 했고 삶이 보람차기만 하였다.

그들은 그들부부에게 강별이녀성은 목에여 물었다. 자기가 뭐라고 그랬듯 극진한 정을 기울이고 술한 고생을 사서 하는가고...

그때 그들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한다.

《동무의 가정에 이점처럼 웃음이 넘치고 동무가 하루 빨리 일떠서서 애국의 한걸음 곳까지 걸을수만 있다면 우리가 바랄것이 없답니다.》

오늘도 강진혁, 주유별부부를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이 강별이녀성을 위해 사랑과 정을 기울이고있다.

사랑의 최고 화신이신 정에하는 김정은원수님을 어버이로 높이 모신 사회주의대가정에서만 이런 아름다운 인간애의 화폭이 펼쳐질수 있는것이다.

권순남



함흥시 사동구역에서 사는 주유별의 가정, 평양시 모란봉구역 성복동에서 사는 강별이녀성



공화국에서 수재들은 정연한 수재교육체제에 의하여 육성되고있다.

공화국에서는 탁아소, 유치원시기부터 특출한 재능을 가진 어린이들을 찾아내어 조기교육을 주고 소학교와 초급중학교, 고급중학교 등에서 파외소조를 통하여 재능을 꽃피우고 공고히 다지도록 하고있다.

이미 1970년대초부터 공화국에서는 예술과 체육분야에서 뛰어난 소질을 가진 학생들을 선발하여 체계적인 교육을 주었으며 1980년대에는

제28차 세계기억력선수권대회에서 공화국의 대학생들이 나라별종합순위에서 단연 제1위를 쟁취한 하나의 사실을 놓고서도 가장 인민적이며 우월한 인재양성정책과 사회주의교육체제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잘 알수 있다.

경에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공화국에서는 수재교육에서 이룩한 성과와 경험에 토대하여 수재교육체제를 더욱 발전시키는데 계속 큰 힘을 넣고 있다.

1919년 12월에 진행된

본사기자

독자문답

제카나동로 박수일선생이 제기한 질문

공화국에서 수재들을 어떻게 키우는가

기초과학분야에서 남다른 소질과 재능을 가진 학생들을 체계적으로 키우기 위한 수재교육체제를 세웠다.

하여 1984년에 수재양성을 위한 평양제1고등중학교(현재 평양제1중학교)가 개교한 이후 각 도에서 제1중학교들이 설립되였다.

1990년대에는 수재교육의 폭을 넓혀 보통교육단계에서부터 수재들을 키워내기 위한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였다.

대학에서도 수재양성을 위한 전문교육체제가 세워졌다. 특히 과학기술로 조국과 민족의 존엄을 떨칠것 기초과학분야의 수재들과 컴퓨터수재, 세계적인 석학자, 독주

가, 미술가, 설계가, 건축가들을 키워내는데 깊은 관심을 돌리고있다.

공화국의 인재증시사상의 구현인 수재교육체제에 의하여 오늘 세계적으로 자랑할만한 수재, 재사들이 련이어 배출되어 민족의 슬기와 재능을 떨치고있다.

2019년 12월에 진행된

《전쟁연습중단! 미국반대!》, 《한미동맹 해체하라!》

— 8.15 를 계기로 남조선에서 반미, 반윤석열투쟁 고조 —

남조선에서 6.15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와 민주로총, 민족문제연구소를 비롯한 진보 운동단체들이 지난 7월 23일 부터 서울을 비롯한 각 지역에서 시국성명, 문명, 기자회견 등을 통해 윤석열역도를 단죄요청하고있다.

이들은 윤석열역도가 대북적대시발언들과 대규모적인 《한》미합동군사연습을 개, 미국의 핵전략자산전개 및 반북베라살포목인 등으로 최악의 전쟁위기를 몰아오고 있다고 단죄하면서 《윤석열이 북남대결을 한사코 추구한다면 민중은 탄핵의 초보를 과감히 들것이다》, 《중미, 반복정권은 피친의 몰락을 면치 못할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런 통일선봉대활동을 벌리면서 《미국과 윤석열이 《슬지 프리덤 실드》 합동군사연습을 강행하겠다는것은 전쟁을 하겠다는것이다》, 《한반도를 전쟁의 화염속에 몰아넣고 동맹의 길을 열어가는 자는 내용의 호소문을 발표하는데 이어 《조선반도의 전쟁기지와 반대!》, 《전쟁위기를 부르는 한미합동군사연습 당장 중지!》, 《한미일군사협력 반대!》 등의 구호들을 웨치면서 기세를 올렸다.



민주로총, 《한국로총》, 전국녀성연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를 비롯한 각계층 단체들도 서울 시내 곳곳에서 남북노동자결의대회, 반전집회, 전쟁연습규탄집회, 평화통일시내대회, 《8.15전국노동자대회》를 비롯한 집회들을 열고 민족자주의 가치를 높이 들고 미국과 윤석열역적패

다양한 반미, 반윤석열투쟁을 적극 전개하였다. 평화통일시내대회를 비롯한 90여개의 정당, 단체들로 조직된 《광복 77주년 8.15자주평화통일대회 추진위원회》는 13일 서울에서 7,000여명의 참가자로 8.15자주평화통일대회를 열고 민족의 단결된 힘으로 남조선강점 미군을 몰아내고 동맹의 길을 열어가는 자는 내용의 호소문을 발표하는데 이어 《조선반도의 전쟁기지와 반대!》, 《전쟁위기를 부르는 한미합동군사연습 당장 중지!》, 《한미일군사협력 반대!》 등의 구호들을 웨치면서 기세를 올렸다.

민주로총, 《한국로총》, 전국녀성연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를 비롯한 각계층 단체들도 서울 시내 곳곳에서 남북노동자결의대회, 반전집회, 전쟁연습규탄집회, 평화통일시내대회, 《8.15전국노동자대회》를 비롯한 집회들을 열고 민족자주의 가치를 높이 들고 미국과 윤석열역적패

당의 반공화국대결책동을 반대하는 투쟁을 더욱 고조시킬데 대한 내용의 공동결의문을 발표하였다.

대회참가자들은 《한미연합군사훈련》이라는 글이 적혀진 얼굴조각을 망치로 부서버리는 상징의식을 진행하고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 속에서도 《시민의 명령이다. 한미일군사협력 중단하라!》, 《한미동맹 해체하라!》, 《양키는 물러가라!》 등의 반미구호들을 들고 풍선의 《대통령실》을 4개 방면에서 포위해들어가는 행진을 하면서 미국에 추종하는 윤석열을 용납할수 없다고 기세를 돋구었다.

한편 민주로총, 《한국로총》을 비롯한 노동운동단체들은 15일부터 9월 19일까지를 《남북노동자공동실천기간》으로 정하고 미국과 윤석열역적패당의 부침합동군사연습과 침략전쟁장비반입책동을 반대하는 투쟁을 동시다발적으로 전개하였다.

리 광 희

수자와 자료가 보여주는 사실

윤석열역적패당이 미국과 함께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남조선미국합동군사연습인 《슬지 프리덤 실드》의 사전연습격인 위기관리연습을 강행하였다. 그리고 오는 22일부터 9월 1일까지 《슬지 프리덤 실드》의 기본연습을 강행하겠다고 떠들고있다.

미국과 남조선호전파들이 강행하는 《슬지 프리덤 실드》 합동군사연습은 우리 공화국을 암살하기 위해 지금까지 벌여온 부침전쟁발장난의 연장이며 그 절정이다. 돌이켜보면 윤석열역적패당은 집권후 지금까지 미국과 함께 공화국을 겨냥한 부침전쟁소동을 그칠새없이 벌려왔다.

보라, 5월 초 조진동태수역에서 3대, 해양조사선 2척을 동원하여 미7함대소속 이지스구축함 《샘슨》호와 강도높은 연합함대합동훈련을 진행, 《전투 9일부러 수습에대》의 전투기들과 미군특수작전수송기가 참가한 대규모 남조선미국연합항공훈련인 《코리아 플라잉 트레이닝》을 두주일간 강행, 5월 11일 남조선미국연합사령부의 지휘아래 남조선

강점 미8군과 함께 2022년 전반기 남조선미국연합의무지원기동훈련 실시, 6월 2일부터 4일까지 일 본의 오키나와해상에서 남조선미국 항공모함합동훈련을 4차례 실시하였다. 6월 13일부터 남조선전역에서 《2022년 화랑》훈련을 벌여놓고 6월 24일부터는 대규모공군전투훈련인 《소링이글》 훈련 진행, 7월 11일부터 《F-35A》를 포함한 남조선과 미국의 전투기들을 수습대 동원하여 남조선미국연합비행연습을 진행하고 7월 15일부터 18일까지 남조선강점 미군과 연합하여 자행포와 박격포, 공격형 직격탄, 땅굴을 비롯한 무장장비들과 800여명의 병력을 동원한 대규모공중대지상합동훈련 실시, 8월에는 미국, 일본과 함께 미사일경보 및 탄도미사일 탐지, 추적훈련인 《퍼시픽 레콘》을 진행하고 런이 다국적합동군사연습인 《림팩》 훈련 참가, 이외에도 남조선호전파들은 그 무슨 《참수작전》을 목적으로 한 특수훈련도 광란적으로 벌리고있다.

지난 5월 12일부터 14일까지 미국 텍사스주 로즈크랜스공

본사기자 배영일

부침과 반공의 무지무도함이 무비 역적 망쳐놓는다

옛글에 이르기를 60대는 인생의 회로에 락, 풍상고초를 다 겪은 이순의 경지에 이르렀다고 하였다.

그런데 60고개를 넘었다는 윤석열역도의 너무나 헛되고 어설픈 작태, 갈수록 더해지는 무지무도함과 경박한 언행에 허구된 실소를 금할수 없다.

북남관계와 조국통일부문에 수십년간 사업해온 사람으로서 역대 최악의 무지무능한 《대통령》, 비상식과 반리성으로 집권된 《대통령》, 북남관계에 대한 가장 초보적인 인식과 리해조차 완전결여된 그 행태를 보고 더이상 할수 없을지 모르겠다.

역도의 실체는 취임연설과 《8.15경축사》에서 크게 자랑한 《담대한 구상》이라는대서 집중조명해볼수 있을것이다.

《담대한 구상》??? 처음 이 말이 나왔을 때부터 나는 애초에 기대조차 하지 않았다.

통두사미라고 광고가 요란하면 실속이 없다고 하지 않았다.

역대 괴뢰집권자들이 모두 그러했듯 화려한 《대통령》, 《대북구상》의 간판속에 내세워있던 본질을 해부해보면 하나같이 뿌리깊은 《흙수통일》 야망이 독사처럼 파리를 틀고있었기때문이다.

때문에 역도가 《8.15경축사》라는데서 《담대한 구상》의 내용에 대해 라렬하였을 때 100일이나 고심하고 구상한것치고는 너무도 어이없고 쓴웃음이 나와 다시 상기하는것조차 시간강비로 여겨진다.

북남관계의 근본은 물론 가장 초보적인 문제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고있는 친하바보가 분명하다는 생각이 굳어진다.

역대 북남관계가 어떤 우여곡절을 겪어왔는지, 무엇이 민족의 화해와 단합, 평화의 앞길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되었는지 초보적인 문제부터 인지하지 못하고있으니말이다.

어제도 그랬지만 악화된 현 북남관계를 해결하자면 동족에 대한 적대적의견과 대결정책을 철회하고 외세의존과 사대주종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것이 북남관계해결의 가장 근본적이고 선자적인 전제조건, 해결방책이라고 볼수 있다.

북남관계개선에 대한 의지가 한조각이라도

있었다면 다른 그 무엇이 아닌 여기에 더 깊이 고심하고 담대한 결단을 내리라고 해도 이를 위한 계획들을 실행했어야 했을것이다.

그런데 역도가 떠벌인 《담대한 구상》이라는것은 그 어느 구세에도 이러한 고심의 흔적이랑은 아무런 눈을 비비며 찾아봐도 볼수가 없다.

오히려 《담대한 구상》이 발표된 다음날 미국과 야합하여 대규모합동군사연습을 광란적으로 벌려놓는것으로 그 《담대》함이 부모만 부침전쟁도발에 있다는것만 보여주었다.

오죽하면 보수적인 괴뢰언론들과 전문가들조차 《비핵, 개방, 3 000》을 제창하였던 리명박역도의 《대북구상》과 달라진것이 무엇인가, 간판만 약간 손질해 바꾸어 달았나, 시국이자 종말이 뻔한 그따위 《대북정책》에 매달리기보다는 내부문제나 신경쓰는것이 좋을듯하다고 신랄히 조소하였는가.

그렇게 무지무도하다니 집안은 니 천두구, 풍진세계의 랑장꾼으로 만들어놓고 밖으로 만사사람이 코웃음치는 《담대한 구상》을 빼앗기 내주고 다니는것이고 그로 하여 민심의 버림을 받는것이다.

한마디로 북남관계의 근본적인 문제 인식조차 결여되다보니 미국도 두려워 감히 어찌지 못하는 우리의 정치사상적위력, 핵군력에야 하루산 곳까지처럼 놀아내고있는것이다.

역도의 100일간의 놓고 확인할수 있는것은 지금과 같이 동족을 적대시키고 외세와 야합한 반공화국적대정책과 군사적대결소동에 부침없이 매달린다면 그만큼 더러운 잔정이 줄어들 뿐이라는것이다.

머리속은 온통 허세와 객기로 일관된 대결야망만 차있어 민족의 평화를 외세에 팔아먹고 조선반도를 전쟁도가니에 몰아넣고있는 이런 행방없는 친하바보를 《대통령》으로 올려앉힌것이 야말로 비운이고 불운이다.

윤석열역도야말로 남조선의 비극의 근원이고 우리 민족의 재앙거리이다. 나는 이 글을 우리 선조들이 남겨놓은 《다행들의필자책》(나쁜 일을 많이 하면 반드시 망하는 법이다.)라는 말을 상기해보는것으로 끝맺고자 한다.

남조선문제전문가 리 경 식

그렇게도 미국없이 못살겠는가

최근 윤석열역도가 미국 상정들을 런이러 만나 반공조약박공조를 비리했었다.

역도는 지난 9월 서울주재 미국대사와 남조선강점 미군사령관을 동시에 만나 비공개담담회를 벌여놓고 12일에는 전 미주무장관을 만나 조선반도안보상황에 대해 모의하였다. 이어 미상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태평양소위원회장과 쑤더공문을 벌렸다. 이와 관련하여 윤석열역적패당은 미국고위급인물들과 함께 당면한 조선반도현안과 북의 동향, 《한미동맹》 강화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는니, 북의 핵과 미사일고도화가 핵확산금지조약체제는 물론 동북아시아와 세계평화에 큰 도전이리나니 하고 떠들었다.

윤석열역도가 미국상정들을 런이러 만나 반공화국공조를 모의한것은 상정의 힘을 빌어서라도 공화국과 끝까지 맞서보려는 흥심의 집중적인 발로이다.

역도가 《대통령》 감투를 쓰자마자 미국상정과 《한미정상회담》이라는것을 벌려놓고 《한미확장경제전략협의체》 제가동, 남조선미국합동군사연습의 범위와 규모화

대하기 위해 미국상정들과 런이러 불순한 모의판을 벌려놓고있는것이다.

윤석열역도가 미국상정들과 변질나게 머리를 맞대고 있는것은 통치력이 한계점에 다달은 자기를 미국이 헌신적처럼 버릴수 있다는 우려를 가셔보려는데도 있다.

다 아는바와 같이 윤석열역도는 집권후 석달도 되지 전에 사대미국과 동족대결, 반인민적약정과 부정부패, 무지와 무능으로 지지력을 바닥으로 곤두박질하였다. 게다가 미국과 하원의장의 서울행각시 면담을 기피하여 상정의 노염을 사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지금 미국조야에서는 《윤석열은 너무 빨리 미국의 집이 되었다》, 《미국은 시급히 리얼리아 하며 그대도 말을 듣지

않으면 대안을 고민해야 한다》며 주교교체를 암시하는 목소리들이 공공연히 울려나오고있다.

이에 극도로 불안해진 역도는 미국상정들을 런이러 만나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 애써준데 대해 고맙게 생각한다느니, 많이 도와주기를 기대한다느니 하고 야양을 떨며 상정의 환심을 사보려고 갖은 노족을 다 부리고 있는것이다.

남조선의 언론들이 윤석열역도와 미국자들이 수시로 마주앉고있는데 대해 《미국의 리해를 구하기 위한 간단담회》, 《불편한 미국의 의중

을 타진한 만남》으로 평하고있는것은 결코 우연한것이 아니다.

미국의 버림을 받을가봐 벌벌 떨며 상정의 바지개방이를 부여잡고 놓을줄 모르는 윤석열역도가 참으로 가궁하기 그지없다.

친미, 종미에 증독되어 미국상정을 위해서라면 간도 쓸개도 다 씹겨차릴 투등사대매국노가 《대통령》의 감투를 쓰고 거들먹거리니 남조선이 앞으로 불행과 재앙의 진땀에 더욱 깊숙이 빠져들게 되리라는것은 불보듯 뻔하다.

남조선에서 반윤석열투쟁이 날로 더욱 고조되고있는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정 윤 성

윤석열역적패당이 안팎으로 일색인 주구다운 본태를 또 한번 과시하였다고 한다.

얼마전 해외에서 있는 남조선과 일 본사이의 외교장관회담만 보아도 그러하다.

남조선외교부 장관이란자는 회담이 성사되는데 대해 감지덕지해하면서 일 제 강제징용피해자 배상문제를 덮어버려 리라 하는 저들의 속심을 섬나라것들에게 구구히 설명하며 관계개선과 대수출규제조치를 철회해줄것을 거듭 강경하였다고 한다.

이것이야말로 친일사대매국에 환장한자들의 쓸개빠진 망동이다.

지난 2018년 남조선법원에서 일 본법정법들이 일제강제징용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불할데 대한 판결이 내려졌는데 일본이 우리 민족에게 저지른 치명적인 과거죄

악을 기어이 결산하려는 민심을 반영한것이다.

그러나 윤석열역적패당은 남조선내 일본법정법정들의 자산현금화를 막기 위해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한다. 법원합의를 내오고 운영한다 등으로 역적계 놀아대며 섬나라것들의 비위를 맞추느라 극성이다.

최근에는 군국주의부활과 채찍책동의 앞장서 날뛰던 전 일본수사 아베가 비명황사한것을 놓고 제 할애비가 죽기라도 한듯이 놀아대며 이를 섬나라것들과의 관계개선의 기로로 써먹으려 하고있다.

윤석열역적패당의 이러한 언저리고 비굴한 태도에 더욱 오만방자해진 섬나라것들은 독도강탈야욕을 더욱 포괄적으로 드러내고 과거 죄악청산을 공공연히 거부하며 기고만장하여 날뛰고 있다.

윤석열역적패당의 친일사대 굴종정책이 가져온 필연적산물이다.

오죽하면 일본의 한 우익 정적이 《일본-남조선관계는 대등하지 않다. 확실하게 말하면 일본이 남조선의 형님법이다》라는 망언까지 서슴없이 뱉었겠는가.

《아직 얼마 안돼 평가가 조 심스럽다.》는 조건을 달았다 고 한다.

《한심하다.》, 《잘하진 필 잘해.》, 《미숙하지 않은 분야를 찾아보기 어렵다.》... 보수세력의 동향이 이러하니 남조선의 전반적민심이야 더 말할 무엇하겠는가.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현 상황의 심각성을 제대로 읽지 않았던 집권초기부터 《식물대통령》으로 락인될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쏟아지고 보수언론들까지도 윤석열역도에 대한 비관일색이다.

《지난 100일은 어떤 희망도 찾을수 없는 암담함 그자체이다. 정치는 불통, 경제는 파국, 외교는 굴욕, 평화는 실종, 국민은 불안과 실망과 분노속에 살고있다.》

각계층의 분노가 이 정도인데도 윤석열역도는 100일 기자회견이래서 《민심을 경멸하게 만드는것이 중요하다.》, 《국민의 뜻을 잘 받들겠다.》는 침몰린 소리만 늘어놓는데 급급했다고 한다. 지지불하락, 인사실배, 《국민의힘》의 내부갈등문제 등에 대한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는 《잘본다.》, 《따져보

다.》, 《검토중이다.》와 같이 늘어놓았다.

전문가들은 윤석열역도의 현 통치위기는 전적으로 그의 정치적무능과 독선, 집권층내부의 부정부패에 의한 혼란때문이라고 하면서 역도

가 탄핵당한 박근혜의 전철을 밟게 될수도 있다고 분석하고있다.

《국민의 단합된 투쟁으로 윤석열정부의 폭정을 막아내고 민주주의와 민생을 회복하자.》

윤석열역도의 집권 100일에 남조선 각계층은 이렇게 웨치고있다.

본사기자 김 정 혁



본전법정법들이 일제강제징용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불할데 대한 판결이 내려졌는데 일본이 우리 민족에게 저지른 치명적인 과거죄

본사기자 주 광 일

평양의 역사유적을 찾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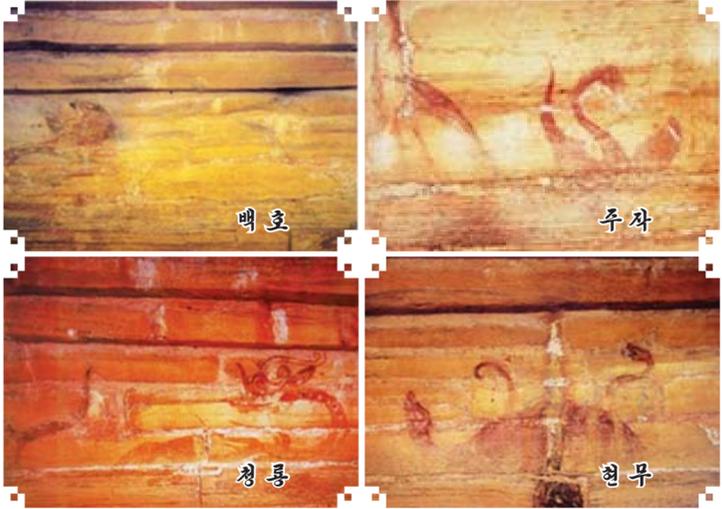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호남리사신무덤

우리는 삼석구역 호남리에 서 또 다른 역사유적을 찾아 보게 되었다. 그것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고구려시기의 벽화무

덤인 호남리사신무덤이었다. 대성산 주변의 삼석구역에는 수십기의 고구려돌관혼 무덤들이 있는데 이 사신무

덤은 벽화도 훌륭히 보존되 어있고 무덤규모도 크다고 동행한 립금석 평양시민족 유산보존사 실장이 이야기 하였다.

그에서 구체적인 설명을 들 을수 있었다. 그는 이 무덤이 5세기~6세 기에 만들어진 사신도주제의 외간벽화무덤으로서 무덤칸 은 안길과 안칸으로 이루어 지었고 그 방향은 남향이라 고 해설해주었다.



대략 동서 3.6m, 남북 3.1m, 높이 3m나 되는 무덤에서 안칸은 벽과 천정은 물론 바닥까지 큰 대리석을 써서 만들어졌는데 네벽에는 동, 서, 남, 북의 수호신인 청룡, 백호, 주작, 현무가 그려져있었다.

립금석실장은 《이 무덤의 사신도에서 특징적인것은 청룡과 주작의 모습입니다. 여 기의 청룡은 다른 벽화무덤 의 청룡들과 달리 머리를 뒤 로 돌리고있으며 주작은 머 리에 뿔장식이 있고 날개와 꼬리가 복잡하면서도 화려한 보통의 주작들과는 달리 머 리가 반반하고 꼬리 꼬리가 단순하게 형성되어있습니다.

이 사신도가 전체적으로 단 순하고 소박한것은 고구려사 신도들중에서 앞선 시기의것 이기때문입니다.》라고 설명 하였다.

그러면서 이 주변에는 수 많은 고구려시기 무덤들이 분포되어있는데 이 무덤들을 통하여 고구려벽화무덤의 변천과 사신도미술의 발전과 정을 연구할수 있다고 말하 였다.

살아움직이는듯한 동적인 느낌, 활달하고 기백있는 색 치와 선명하고 부드러운 색 채표현들이 잘 살아나고있는 고구려시기의 벽화무덤들을 통하여 우리는 고구려인민들 의 강의하고 진취적인 기상 과 함께 뛰어난 예술적재능 을 엿볼수 있었다.

장속영



2021년 10대최우수교원

해주시 구제유치원 교양원 강금순

해주시 구제유치원 교양원 강금순은 조선노동당의 교육 중시사상을 높이 받들고 뛰 어난 재간동이를 많이 키 워낸 실력있는 교육자이다. 조국희해주교원대학을 졸업 하고 교양원이 된 그는 지 난 10여년간 학령전교육사업 에 모든 지혜와 열정을 다 바치였다.

아름다운 꽃을 가꾸는 원 예사처럼 호기심많은 어린이 들의 물음과 행동, 눈빛과 손짓 등을 세심히 관찰하며 부모들도 몰랐던 천성적소질 과 재능의 싹을 하나하나 찾

아 키우는 그들 아이들과 학 부형들은 《우리 선생님》이 라고 존경하며 따르고있다. 자질향상을 첫자리에 놓고 유치원생들의 연령심리적특성 에 맞는 교육방법을 부단히 탐구하며 교육교양의 전 과정 을 어린이들의 지능개발과정으 로 전환시키기 위해 그가 지 새운 밤은 얼마인지 모른다. 뛰어난 재능을 가진 전국 유치원어린이들의 경연에서도 우수한 성과를 거둔 해주시 구제유치원 어린이들의 자랑 속에는 그의 남모르는 노력 이 깃들여있다.

본사기자

유구한 역사, 찬란한 문화 민족고전 《근역서화정》

《근역서화정》은 우리 민족이 배출한 역대 우수한 서예가, 화가들을 종합적으로 소개한 고전으로서 1928년에 오세창에 의하여 편찬되 었다. 《근역서화정》이란 조선의 글씨와 그림을 고증한 책이라 는 뜻이다. 1책 5권으로 구성된 《근

역서화정》은 크게 세나라시 기, 고려시기, 조선봉건왕조 시기로 구분하여 총 1117명의 인물자료들을 서술하였다. 책에서는 270여종의 옛 문헌들에서 뽑은 자료들에 기 초하여 창작가별로 생존된 대, 창작활동, 작품에 대 한 평가와 일화 등을 서술 하고 해당한 문헌출처를 밝

히였다. 그가운데는 현재 제목으로만 전해지는 책들도 적지 않 게 들어있다. 책에 오른 인물들을 시기 별로 보면 세나라시기부분에서는 출기, 당징, 설총, 김생, 최치원 등 23명을 서술 하고 고려시기부분에서는 왕 건, 강감찬, 김부식, 정지상,

정몽주, 정도전 등 169명을 소개하였다.

그리고 조선봉건왕조시기 부분에서는 안견, 김시습, 신사임당, 리이, 휴경, 리항복, 한호, 허란설현, 김홍도, 김정희와 같은 서예가 들을 포함하여 871명에 이 르는 인물들의 창작활동을 싣고 기타 54명의 인물들에 대해서도 보충적으로 기록하 였다. 《근역서화정》은 중 세미술사와 금석학연구에서 중요한 자료적가치를 가지고 있다.

본사기자

민족요리 오이소박이

오이 1.3kg일 때 무우 330g, 파 35g, 마늘 34g, 생강 13g, 사탕가루 10g, 소금 16g, 실고추 3g을 준비한다.

오이는 소금으로 문질러 씻은 다음 4~5cm길이로 토막낸다. 이것을 한쪽끝이 붙어있게 열십자로 쪼개고 소

금을 뿌린다. 무우와 파는 채치고 생강은 다져 즙을 내며 마늘은 다진다. 채썬 무우에 채썬 파, 다진 마늘, 고추가루, 사탕가루, 실고추, 소금, 생강즙을 넣고 버무리 소를 만든다.



전연기념물 오차바위

오차바위는 통일군 읍에서 20여km 떨어진 동풍포의 남서부연안에 있다. 주변에는 기암절벽을 이루고 묘하게 생긴 바위들이 서로 키돋움하며 바다의 경치를 한껏 돋구어주고있다. 오차바위의 높이는

12~15m이고 밑둘레는 10m이다. 오차바위는 직현군층의 규암이 해식과 풍화작용에 의하여 이루어진 진귀한 바위로서 학술적의의가 크다.

본사기자



도마도의 놀라운 치료효과

도마도는 훈한 냄새지만 치료효과가 뚜렷하다. 도마도를 리용하면 다음과 같은 병 및 증상을 치료할 수 있다. -피부병 잘 익은 도마도의 껍질을 벗기고 짓이긴다. 이것을 하루 2~3번씩 아픈 부위에 바른면 진균감염에 의한 피부병을 치료할수 있다. -궤양 경한 소화성궤양환자인 경우 도마도즙과 감자즙 각각 반교배를 한데 섞어 아침저

녁으로 한교배씩 5일간 마시 면 궤양을 효과적으로 치료 할수 있다. -고혈압 사탕가루를 문헌 신선한 도마도 1~2알을 매일 아침 빈속에 먹으면 혈압을 현저히 떨글수 있다. -두위 도마도 1~2알을 얇게 썰어 소금이나 사탕가루를 약간 두고 만든 더운 국을 먹으면 두위를 막을수 있다.

본사기자

임진조국전쟁시기 의병장이었던 김덕령이 22살때 있는 일 이었다. 그의 어머니가 알지 못할 병으로 앓아눕게 되었다. 주변마을의 의원들 을 청해다가 별의별 치료법을 하고 약을 썼으나 백약이 무효이고 병세는 날날이 더욱더 심해갔다. 김덕령이 어머니를 치료하는 의원한테 무슨 다른 방도가 없겠는가 묻자 의원은 긴 한숨을 쉬고 나서 여기서 300리 남쪽에 있는 진주에 용한 명사가 있긴 한데 너무도 멀어서 모 서술수가 없을것이라고 말하였다. 김덕령은 그 말을 듣기 바쁘게 발떡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길로 말을 타고 진주명의를 찾아 갔다. 병세를 들은 진주 의원은 가망도 없 는 환자때문에 300리 먼길을 어떻게 가겠는가하 였다.

사화 마지막발명품 (6) 글 리성덕, 그림 채대성



잠시후 자리를 차고 일어난 그는 다시금 일에 파묻혔다. 마음의 고통을 잊는 길은 그 길밖에 없었던것이다. 탐구와 노력의 나날은 홀로 돌고 돌고 있었다.

그리고 12개의 인형들과 200여개에 달하는 지레대장 치들, 37개의 쇠공이들이 모두 흘러내리고 고여오르는 물의 힘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동작하게 되어있었다.

《참, 기묘한 장치로군. 《이것이 귀신의 조화지 어 디 사람의 솜씨라 할수가 있 소. 참, 장호군(호군은 정 4품벼슬이름. 장영실은 세종 15년 9월에 호군의 벼슬을 받았다.)은 비상한 사람이요. 몇백년안에는 다시 볼수 없는 인물이요.》

《잠, 기묘한 장치로군. 《이것이 귀신의 조화지 어 디 사람의 솜씨라 할수가 있 소. 참, 장호군(호군은 정 4품벼슬이름. 장영실은 세종 15년 9월에 호군의 벼슬을 받았다.)은 비상한 사람이요. 몇백년안에는 다시 볼수 없는 인물이요.》

《잠, 기묘한 장치로군. 《이것이 귀신의 조화지 어 디 사람의 솜씨라 할수가 있 소. 참, 장호군(호군은 정 4품벼슬이름. 장영실은 세종 15년 9월에 호군의 벼슬을 받았다.)은 비상한 사람이요. 몇백년안에는 다시 볼수 없는 인물이요.》

《잠, 기묘한 장치로군. 《이것이 귀신의 조화지 어 디 사람의 솜씨라 할수가 있 소. 참, 장호군(호군은 정 4품벼슬이름. 장영실은 세종 15년 9월에 호군의 벼슬을 받았다.)은 비상한 사람이요. 몇백년안에는 다시 볼수 없는 인물이요.》

《잠, 기묘한 장치로군. 《이것이 귀신의 조화지 어 디 사람의 솜씨라 할수가 있 소. 참, 장호군(호군은 정 4품벼슬이름. 장영실은 세종 15년 9월에 호군의 벼슬을 받았다.)은 비상한 사람이요. 몇백년안에는 다시 볼수 없는 인물이요.》

《잠, 기묘한 장치로군. 《이것이 귀신의 조화지 어 디 사람의 솜씨라 할수가 있 소. 참, 장호군(호군은 정 4품벼슬이름. 장영실은 세종 15년 9월에 호군의 벼슬을 받았다.)은 비상한 사람이요. 몇백년안에는 다시 볼수 없는 인물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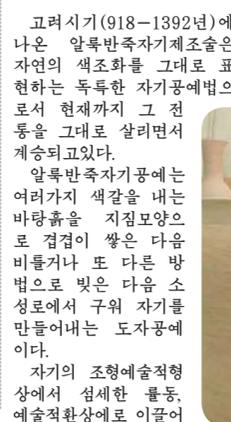
속담과 뜻

- ◆ 곡식이삭은 여름수록 고개를 숙인다.
◆ 절하고 뽀뽀는 일 없다.
◆ 물이 깊을수록 소리가 없다.
◆ 뽀에 잔 물은 저어도 소리가 안난다.
◆ 사람은 얼굴이 고운것이 아니라 일이 굵다.

알록반죽자기제조술

고려시기(918-1392년)에 나온 알록반죽자기제조술은 자연의 색조화를 그대로 표현하는 독특한 자기공예법으로서 현재까지 그 전통을 그대로 살리면서 계승되고있다. 알록반죽자기공예는 여러가지 색깔을 내는 바탕흙을 지질묘양으로 곱게 섞은 다음 비벼거나 또 다른 방법으로 빛은 다음 소성로에서 구워 자기를 만들어내는 도자기공예이다.

가을 물결, 바람, 구름과 같은 알록반죽은 세계적으로도 높이 평가되고있다.



《저의 청이 너무 무리한 줄 아옵니다. 허나 이 세상길이나 300리를 갔다올 수 있지만 우리 어머니는 저 세상길로 한번 떠나시면 다시 돌아오지 못하지 않나이 까!》

본사기자

《저의 청이 너무 무리한 줄 아옵니다. 허나 이 세상길이나 300리를 갔다올 수 있지만 우리 어머니는 저 세상길로 한번 떠나시면 다시 돌아오지 못하지 않나이 까!》

《저의 청이 너무 무리한 줄 아옵니다. 허나 이 세상길이나 300리를 갔다올 수 있지만 우리 어머니는 저 세상길로 한번 떠나시면 다시 돌아오지 못하지 않나이 까!》

《저의 청이 너무 무리한 줄 아옵니다. 허나 이 세상길이나 300리를 갔다올 수 있지만 우리 어머니는 저 세상길로 한번 떠나시면 다시 돌아오지 못하지 않나이 까!》

《저의 청이 너무 무리한 줄 아옵니다. 허나 이 세상길이나 300리를 갔다올 수 있지만 우리 어머니는 저 세상길로 한번 떠나시면 다시 돌아오지 못하지 않나이 까!》

《저의 청이 너무 무리한 줄 아옵니다. 허나 이 세상길이나 300리를 갔다올 수 있지만 우리 어머니는 저 세상길로 한번 떠나시면 다시 돌아오지 못하지 않나이 까!》

《저의 청이 너무 무리한 줄 아옵니다. 허나 이 세상길이나 300리를 갔다올 수 있지만 우리 어머니는 저 세상길로 한번 떠나시면 다시 돌아오지 못하지 않나이 까!》



《저의 청이 너무 무리한 줄 아옵니다. 허나 이 세상길이나 300리를 갔다올 수 있지만 우리 어머니는 저 세상길로 한번 떠나시면 다시 돌아오지 못하지 않나이 까!》

《저의 청이 너무 무리한 줄 아옵니다. 허나 이 세상길이나 300리를 갔다올 수 있지만 우리 어머니는 저 세상길로 한번 떠나시면 다시 돌아오지 못하지 않나이 까!》

《저의 청이 너무 무리한 줄 아옵니다. 허나 이 세상길이나 300리를 갔다올 수 있지만 우리 어머니는 저 세상길로 한번 떠나시면 다시 돌아오지 못하지 않나이 까!》

《저의 청이 너무 무리한 줄 아옵니다. 허나 이 세상길이나 300리를 갔다올 수 있지만 우리 어머니는 저 세상길로 한번 떠나시면 다시 돌아오지 못하지 않나이 까!》

《저의 청이 너무 무리한 줄 아옵니다. 허나 이 세상길이나 300리를 갔다올 수 있지만 우리 어머니는 저 세상길로 한번 떠나시면 다시 돌아오지 못하지 않나이 까!》